

예비 고1 EBS 입시자료집

2026학년도 입시정보



※ 이 자료집에 수록된 내용은 최신 정보를 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럼에도 대학 입시 요강은 수시로 업데이트 될 수 있습니다. 반드시 EBSi 홈페이지에서 대학별 최신 전형 요강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Contents 차례

I . 2026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의 이해	3
1.1 주요 발표 내용	4
1.2 변화 내용에 따른 대비 방안	5
II . 2015 개정교육과정의 이해	17
2.1 2015 개정교육과정 이해	18
2.2 진로에 따른 과목 선택의 중요성	24
2.3 고교학점제의 이해	27
III . 고등학교 학교생활 안내	31
3.1 고등학교 생활 안내	32
3.2 학생부는 무엇인가?	35
3.3 학생부 어떻게 완성하나?	36
IV . 과목별 학습법	41
4.1 국어	42
4.2 수학	45
4.3 영어	50
4.4 한국사	52
4.5 통합사회	54
4.6 통합과학	56
V . EBSi 콘텐츠 활용 안내	61
5.1 EBSi 소개	62
5.2 예비 고1 대상 추천 강좌	63
5.3 EBSi 편리한 서비스	68
5.4 입시정보 서비스	70

I

2026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의 이해

2026학년도 대입제도 개편의 이해

1.1 주요 발표 내용

2026학년도 대입 전형은 2025학년도 대입 전형과 큰 변화 없이 진행될 것이다.

가. 2024학년도 이후 대학 입학제도 개편방안

- 대학의 정시 수능위주전형 비율을 **학종과 논술 위주 전형으로 쏠림이 있는 서울 소재 16개 대학을 대상으로 수능 위주 전형 40% 이상 권고**

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광운대 동국대 서강대 서울시립대 서울대 서울여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송실대 연세대 중앙대 한국외대 한양대

- 수능 최저학력기준 활용 여부는 대학 자율
- 수능 과목 구조 및 출제범위 결정
 - 국어·수학·직업탐구 공통 + 선택형 구조
 - 사회/과학탐구 자유롭게 2과목 선택 가능
 - 영어, 한국사, 제2외국어/한문은 절대평가 실시
- 수능 EBS 연계율 50%, 간접연계
- 고교 학생부 기재 개선
 - 수상경력 대입 미반영 - 자율동아리 대입 미반영 - 청소년 단체활동 미기재
 - 소논문(R&E) 미기재 - 개인 봉사활동 실적 대입 미반영 - 방과후학교 활동 미기재
 - 영재 발명교육 대입 미반영 - 진로희망분야 대입 미반영 - 독서활동 대입 미반영
 - 창의적체험활동 특기사항 → 자율활동(500자), 동아리활동(500자), 진로활동(700자)
- 대학의 선발 투명성 제고
 - 자기소개서 폐지 - 교사추천서 폐지
- 면접·구술고사 개선
 - 학생부 기반 맞춤형 확인 면접 지향 - 블라인드 면접 도입
- 논술전형 단계적 폐지 유도

나. 고교교육 혁신 방향

■ 고교학점제 도입

- 1단계: 2018~2021년 학점제 도입 기반 마련(2015 개정교육과정 현장 안착)
‘진로선택과목’ 성취도를 대입 전형 자료로 제공
- 2단계: 2022~2024년 학점제 부분 도입(2015 개정교육과정 일부 개정)
- 3단계: 2025년~ 학점제 본격 시행(차기 교육과정 적용)

■ 고교체제 개편

- 1단계: 2017~2019년 고입제도 개선(자사고, 외고, 국제고 선발 시기 후기로 변경)
- 2단계: 2018~2020년 성과평가를 통한 일반고로 단계적 전환 유도
- 3단계: 2020년 이후 고교체제 개편

1.2 변화 내용에 따른 대비 방안

가. 2024학년도 이후 대학 입학 제도 개편 방안

1) 정시(수능)전형 비율 확대

◆ 대입 전형 공정성 강화를 위해 서울 소재 16개 대학은 수능 위주 전형 40% 이상 권고

- 산업대학, 전문대학, 원격대학 등은 국가교육회의 권고안의 부대 의견을 고려하여 제외
-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 사업’을 재설계하여 재정 지원과 연계
 - 수능 위주 전형 30% 이상 대학에 사업 참여 자격 조건 부여
 - 단, 학생부교과전형 30% 이상 대학은 자율

2024학년도 대입 전형 시행 계획에 나타난 서울과 수도권, 지방의 전형유형(교과, 종합, 수능)별 모집 인원 및 비율은 다음과 같다.

구분	학생부				수능		전체 정원
	교과		종합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서울	13,410	15.0	28,205	31.6	32,961	36.9	89,354
수도권	27,181	20.5	38,395	29.0	43,818	33.1	132,307
지방	127,168	60.0	41,125	19.4	22,482	10.6	211,989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소재 대학을 살펴보면 정시의 비율이 35% 이상이고, 실제 수시에서 선발하지 못하고 정시로 이월되는 인원을 고려하면 정시전형은 40% 이상의 학생을 선발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24학년도 정시모집 선발 비율은 2023학년도 대비 1.0% 감소한 21.0%이고, 학생부교과전형은 0.6% 증가한 44.8%이다. 학생부종합전형은 0.3% 줄어든 23.0%를 선발한다. 대입 공정성 강화 대상 16개 대학(건국대, 경희대, 고려대, 광운대, 동국대, 서강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서울여대, 성균관대, 숙명여대, 송실대, 연세대, 중앙대, 한국외대, 한양대)은 정시가 더욱 확대된다. 2024학년도 대입 전형은 수시모집 인원이 441명 감소하고 정시모집 인원은 4,418명 감소했다.

한편, 비수도권 대학들은 정시전형이 11.9%로 낮게 나타나고 있지만 수시 교과전형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기 때문에 예외를 인정받아 정시 인원을 늘려야 할 필요가 없다. 이 대학들의 경우 점차 학생들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충원율을 높이기 위해 대부분의 학생들을 수시에 선발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비수도권 대학의 경우 정시 모집인원을 늘리는 것에 관심이 적을 수밖에 없다.

수시모집은 수도권 대학들의 선호도가 높은 편인데 수도권 소재 대학은 정시 비율이 41.3%로 2023년도에 비해 0.3% 늘어났고, 학생부교과전형은 11.3%로 0.1% 감소했다. 학생부종합전형은 32.9%로 2023학년도보다 0.8% 줄어들었다. 정시모집 선발 인원은 늘어났지만 학생부종합전형 선발 인원이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수시모집에서 학생부종합전형의 중요성은 아직도 크다고 볼 수 있다. 수능위주전형 확대와 관련된 정책은 수도권 소재 대학의 정시전형 비율을 상승시켜서 수능시험의 중요성을 강화시켰다. 학생들은 수시의 학생부전형과 정시의 수능전형 중 자신에게 적합한 전형이 무엇인지 고민 하되, 두 전형 모두 고입 초기부터 꾸준히 함께 준비해나가는 것이 유리할 것이다.

2024-2023 전형유형별 모집인원						(단위: 명/%)
구분	전형유형	2024학년도(A)		2023학년도(B)		증감현황(C) (C)=(A)-(B)
		모집인원	비율	모집인원	비율	
수시	학생부위주(교과)	154,121	44.8	154,464	44.2	-343
	학생부위주(종합)	79,358	23.0	81,390	23.3	-2,032
	논술위주	11,214	3.3	11,016	3.2	198
	실기/실적위주	22,539	6.5	21,014	6.0	1,525
	기타	4,800	1.4	4,558	1.3	242
	소계	272,032	79.0	272,442	78.0	-410
정시	수능위주	66,300	19.3	69,911	20.0	-3,611
	실기/실적위주	5,515	1.6	6,150	1.8	-635
	학생부위주(교과)	228	0.1	252	0.1	-24
	학생부위주(종합)	162	0.0	313	0.1	-151
	기타	59	0.0	56	0.0	3
소계		72,264	21.0	76,682	22.0	-4,418
합계		344,296	100	349,124	100	-4,828

* 전형 유형별 선발 비율은 소수점 둘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값임

2) 수시 수능 최저학력기준 활용

- ◆ 수능 최저학력기준 활용 여부는 대학 자율에 맡김
 - 단, 선발 방법의 본래 취지를 저해하지 않도록 재정 지원과 연계함

기존의 대입 제도는 수시전형은 학생부중심, 정시전형은 수능 중심으로 구분하여 수시전형에는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활용하지 않도록 권장해왔다. 그런데 지금까지 권장하던 것을 자율에 맡기면서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채택하는 대학이 늘어났다. 특히, 학생부교과전형을 신설한 대학은 대부분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설정하였다. 정시전형 모집인원 증가와 수능 최저학력기준 적용 대학이 증가하면서 수능시험은 매우 중요하게 되었다.

3) 수능 과목 구조 및 출제 범위

- ◆ 국어 : 공통과목(독서, 문학) + 선택과목(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중 택1)
- ◆ 수학 : 공통과목(수학I, 수학II) + 선택과목(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중 택1)
- ◆ 영어, 한국사 : 절대평가 유지
- ◆ 탐구(일반계) : 사회·과학 계열 구분 없이 사회 9과목, 과학 8과목 중 택2
- ◆ 탐구(직업계) : 공통과목(성공적인 직업생활) + 5개 계열 중 택1
- ◆ 제2외국어/한문 : 9과목 중 택1(절대평가 전환)

영역	출제 범위(선택과목)
국어	공통 : 독서, 문학 선택 :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중 택1
수학	공통 : 수학I, 수학II 선택 :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중 택1
영어	영어, 영어II
한국사	한국사
탐구	(문과/이과 구분 폐지) 일반계 : 사회·과학 계열 구분 없이 택2 - 사회 : 9과목 - 과학 : 8과목(과학I, 과학II)
	직업계 : 전문공통(성공적인 직업생활) + 선택(5개 계열 중 택1) - 직업 : 6과목(성공적인 직업생활, 농업기초기술, 공업일반, 상업경제, 수산·해운산업의 기초, 인간발달)
제2외국어 /한문	9과목 중 택1(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아랍어, 베트남어, 한문)



2022학년도 이후 수능의 경우, 국어, 수학 과목이 공통과목+ 선택과목으로 이루어지면서 선택과목에 따른 유불리를 완화하기 위하여 선택과목 조정 원점수를 산출하여 보정하게 되었다. 이것은 어려운 과목을 선택한 학생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점수를 올려주는 방식이다.

〈공통과목 점수 활용 선택과목 점수 조정〉

$\text{선택과목 조정 원점수} = \frac{\text{[선택과목] 원점수} - \text{평균}}{\text{표준편차}} \times \frac{\text{[선택과목 집단의] 공통과목 원점수}}{\text{표준편차}} + \frac{\text{[선택과목 집단의] 공통과목 원점수}}{\text{평균}}$		
$\text{공통과목 원점수 표준화} = \frac{\text{[공통과목] 원점수} - \text{평균}}{\text{표준편차}}$		$\text{선택과목 조정점수 표준화} = \frac{\text{[선택과목] 조정점수} - \text{조정점수 평균}}{\text{조정점수 표준편차}}$

선택과목 조정 원점수는 내가 선택한 선택과목 원점수에서 평균을 뺀 다음 표준편차로 나누고, 선택과목 집단의 공통과목 원점수 표준점수를 곱하고, 선택과목 집단의 공통과목 원점수 평균을 더하는 방식이다. 그런 다음에 공통과목 원점수를 표준화하여 74%(국어는 76%), 선택과목 조정점수를 표준화하여 26%(국어는 24%)를 반영하는 방식이다. 수학 과목의 경우 공통과목이 74%인데, 아무래도 이와 성향 학생들의 점수가 높기 때문에 문과 학생들이 상위 등급을 따기에 어려운 구조다. 이와 학생들의 성적이 높은 것은 그만큼 어려운 과목에 시간을 더 투자했기 때문으로 보여진다.

제2외국어/한문 영역은 지금까지는 많은 대학에서 탐구영역을 대체하는 것이 가능했기 때문에 상위권 학생들을 중심으로 필수로 응시해야 할 과목이었다. 그러나 2022학년도부터 탐구영역은 상대평가를 유지하지만, 제2외국어/한문은 절대평가로 바뀌어 서로 대체가 불가능해졌다. 따라서 제2외국어/한문 영역의 경우 수험생들의 외면을 받으면서 응시율이 급격히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2024학년도 자연계 수능 선택과목 지정 현황〉

영역	선택과목 지정 여부	
	지정 과목	해당 대학
국어	지정X	모든 대학
수학	기하 또는 미적분	가천대, 가톨릭대, 강원대, 건국대(글로벌), 건국대, 경북대, 경성대, 경희대, 계명대, 고려대, 고려대(세종), 고신대, 공주대, 광운대, 국민대, 단국대, 대구가톨릭대, 대구한의대, 덕성여자대, 동국대(경주), 동국대, 동덕여자대, 동아대, 동의대, 목포대, 부산대, 상지대, 서강대, 서울과학기술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세종대, 숙명여자대, 순천대, 송실대, 아주대, 연세대(미래), 연세대, 영남대, 울산대, 원광대, 이화여자대, 인제대, 인하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조선대, 중앙대, 차의과학대, 충남대, 충북대, 한국교원대, 한국항공대, 한림대, 한양대(ERICA), 한양대, 홍익대
	확률과 통계	대구한의대, 동의대, 인제대

영역	선택과목 지정 여부	
	지정 과목	해당 대학
탐구	과탐 2과목	가천대, 가톨릭대, 강릉원주대, 강원대, 건국대(글로벌), 건국대, 건양대, 경북대, 경상대, 경성대, 경희대, 계명대, 고려대, 고려대(세종), 고신대, 광운대, 국민대, 단국대, 대구가톨릭대, 대구한의대, 덕성여자대, 동국대(경주), 동국대, 동덕여자대, 동아대, 부산대, 상지대, 서강대, 서울과학기술대, 서울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성신여자대, 세종대, 숙명여자대, 순천대, 송실대, 아주대, 연세대(강원), 연세대, 영남대, 우석대, 울산대, 원광대, 을지대, 이화여자대, 인제대, 인천대, 인하대, 전남대, 전북대, 제주대, 조선대, 중앙대, 차의과학대, 충남대, 충북대, 한국교원대, 한국기술교육대, 한림대, 한양대(ERICA), 한양대, 홍익대
	사탐 2과목	대구한의대, 인제대

자연계의 경우 수학 선택과목과 탐구 선택과목을 특정 대학에서 필수 응시과목으로 지정하였다. 2024 시행 계획에 따르면 자연계 수학의 경우 기하 또는 미적분을 필수로 선택하는 대학은 58개교이고, 탐구 영역에서 과탐 2과목을 필수로 선택하는 대학은 62개교이다. 과목별 선택의 경향은 기존의 탐구영역에서 특정 과목에 학생들의 쏠림이 나타나는 것과 비슷하게 많은 학생들이 선택하는 과목이 더욱 선호될 가능성이 높다. 2015 개정교육과정의 취지상 학생의 진로에 맞는 과목을 수강하고 선택하는 것도 학생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자신이 지원할 전형에 따라 신중하게 과목을 선택한다면 입시를 준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4) 수능 EBS 연계율

◆ EBS 연계율은 50%로 과목 특성에 맞춰 간접연계로 전환
(간접연계) EBS 교재의 지문과 주제·요지가 유사한 지문을 다른 책에서 발췌 사용하는 것으로, 영어 지문 단순 암기 등 직접연계로 인한 문제점 해소

EBS 연계율이 50%인 만큼 연계교재를 중심으로 수능을 준비해야 한다. 도표나 자료, 지문의 단순 암기는 지양하고, 기본이 되는 교과서와 EBS 연계교재를 중심으로 기본적인 원리를 이해하고 파악하는 학습이 되어야 할 것이다.

5) 고교 학생부 기재 개선

인적·학적사항	- 인적·학적사항 통합
출결상황	- ‘미인정’은 불성실함의 근거
수상경력	- 교내상만 입력 - 대입전형 자료로 미제공
진로 희망사항	- 진로희망은 창체 진로활동 영역에 기재 - 대입전형 자료로 미제공
자율동아리	- 대입전형 자료로 미제공



소논문 활동	- 소논문(R&E)은 학생부 모든 항목에 미기재																							
자격증 및 인증취득 상황	- 재학중에 취득한 기술 관련 자격증만 입력 - 대입 활용자료 미제공																							
청소년 단체활동	-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청소년 단체활동 미기재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 정규교육과정 내 클럽: 학생의 개별적 특성을 중심으로 기재 - 정규교육과정 외 클럽: 클럽명과 활동시간만 기재																							
봉사활동 실적	- 특기사항 미기재 - 개인 봉사활동 실적은 대입전형 자료로 미제공																							
방과후학교 활동	- 학생부에 미기재																							
기재 분량 감축	- 각 항목별 특기사항 입력 글자 수 축소 <table><tr><th>항목</th><th colspan="5">현행</th></tr><tr><th></th><th>자율</th><th>동아리</th><th>봉사</th><th>진로</th><th>계</th></tr><tr><td>창체 특기사항</td><td>500</td><td>500</td><td>미기재</td><td>700</td><td rowspan="2">2,200</td></tr><tr><td>행특 종합의견</td><td colspan="4">500</td></tr></table>	항목	현행						자율	동아리	봉사	진로	계	창체 특기사항	500	500	미기재	700	2,200	행특 종합의견	500			
항목	현행																							
	자율	동아리	봉사	진로	계																			
창체 특기사항	500	500	미기재	700	2,200																			
행특 종합의견	500																							
학생부 관련 연수 강화	- 시·도교육청 업무 담당자, 일반 교원, 강사 요원 등 대상자별 맞춤형 연수 제공																							
기재 도움 자료 확대 보급	- 학교급별 맞춤 기재 요령, 기재 우수 사례, 기재 지원 프로그램 보급																							
기재 책무성 강화	- 단위학교/교육청의 학생부 기재·관리 관련 점검 계획 수립·시행 의무화 허위사실 및 기재 금지사항 기재 시 관련 법령·지침에 따라 엄정 조치																							
평가 신뢰도 제고	- 부정행위자 처벌 강화 - ‘평가 관리 강화 방안’ 마련 및 시행 평가관리 일원화, 출제 중 보안대책 수립, 학교 내 별도 평가 관리실 설치, 교육 청별 여건을 감안한 CCTV 설치 등 추진																							

• 수상경력 : 그동안 수상은 어떤 대회라도 상을 많이 받는 것에 중점을 둔 경우가 많았고 수상의 등위보다도 일단 수상 자체가 더 중요하게 생각되었다. 그러나 이제 수상경력이 대입전형 자료로 제공되지 않기 때문에 일선 학교에서는 교내대회를 대폭 축소하였다. 이에 따라 교과세특과 창체활동이 더욱 중요해지게 되었다. 학생부종합전형을 준비하는 학생들은 학교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하고, 자신의 흥미와 적성에 맞는 보다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준비를 해나가야 할 것이다.

• 자율동아리 : 자율동아리는 학생의 관심을 드러내는 대표적인 활동으로 여겨져 그동안 필요 이상으로 과열되던 항목 중 하나이다. 그러나 대입전형 자료로 미제공되면서 평가 자료로서의 중요성은 없어졌다. 다만, 학생 스스로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는 활동을 깊이 있게 한다면 전공에 대한 이해를 넓혀갈 수는 있다. 관심 분야에 대한 깊이 있는 탐구활동은 자기계발에 도움이 될 것이다.

• 소논문(R&E) 모든 항목 미기재 : 그동안 소논문을 고등학생 수준에서 써낸다는 것은 불가능하기도 하고 과도한 연구 내용을 신뢰하기도 어렵다는 주장이 힘을 얻으면서 많은 대학들은 이미 평가에서 이를

제외하고 있었던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질의 학생부 기록을 위해 소논문은 학생부 어딘가에 끊임없이 기록되어 왔다. 소논문 금지는 ‘용어사용 금지’에 그칠 것이고, ‘탐구보고서’라는 명칭으로 변경될 것이다. 사실상 지적 호기심을 충족하는 방식으로 학생이 탐구한 보고서는 ‘소논문’이라는 명칭만 사용하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기록할 수 있기 때문에 ‘소논문’이라는 용어는 사라져도 ‘(심화)탐구보고서’라는 명칭으로 학생들의 탐구는 계속 기록될 것이다. 학생 스스로 자신의 지적 호기심을 채우기 위해 노력하는 활동은 다양한 방식으로 계속될 것이다.

• 방과후학교 활동 : 방과후학교 활동은 학교마다 다양하게 운영되는 학교의 프로그램이다. 사실상 사교육비를 줄이는 목적으로 운영되는 활동이기 때문에 수능 문제 풀이 형식의 수업이 많이 운영되고 있다. 그러나 학교에 따라 학생들의 참여와 일반 수업에서 제공할 수 없는 발표, 토론 수업을 실시하는 학교들도 많기 때문에 후자와 같은 학교들의 경우 학교의 프로그램을 통한 양질의 학생부 기록이 어려워져 학생 부종합전형 준비에 불리해질 수도 있을 것이다. 따라서 방과후학교 활동은 기존에 많이 담당하던 수능 준비 기능으로 국한되는 비율이 늘어날 것이라 생각한다. 또 학생부 기록이 불가능해진 만큼 방과후학교 활동 자체가 축소되는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오히려 방과후학교 수업시간에 이루어지는 거점형·연합형 학교의 심화 수업이나 온라인강좌 등의 공급과 수요가 새롭게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학생들은 자기 학교의 방과후학교 활동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 지역 교육기관 등에서 다양하게 제공되는 프로그램을 잘 알아보고 자신에게 더 필요한 활동들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정보를 잘 검색하고 시야를 넓혀야 할 필요가 있다.

• 창의적체험활동 특기사항 기재 분량 축소 : 창의적체험활동은 학교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활동과 행사에 의미를 부여하는 중요한 기록 항목이다. 특히 자율활동과 진로활동의 경우 여기저기 다 적지 못한 다양한 활동을 기록하는 공간으로도 활용되어 왔는데, 기재 분량의 축소는 전체 학생들의 활동 기록 분량 측면에서 변별력을 줄어든게 할 것이다. 이는 학교에서의 활동을 늘려 학생부의 분량으로 좋은 평가를 받기가 힘들어진다는 뜻이다. 즉, 줄여든 글자 수 안에 기록한 활동의 내용이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활동의 양보다는 질이 좋아져야 한다는 뜻이다. 따라서 학생들은 학교에서 아무 활동이나 많이 참여하는 것보다는 자신이 보다 관심있는 분야의 활동을 깊이 있게 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한 가지 활동이라도 깊이 있게 경험을 한 학생들이 유리해질 것이다. 이에 따라 자신의 진로나 관심 영역이 뚜렷한 학생들이 학생 부종합전형을 준비하는 데 더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6) 대학의 선발 투명성 제고

- ◆ 자기소개서 폐지
- ◆ 교사추천서 폐지

자기소개서는 학생이 스스로 자신의 경험을 평가자인 입학사정관에게 직접 전달할 수 있는 중요한 기록물이다. 그러나 많은 학생들이 작성에 어려움을 호소했고, 사교육의 영향도 있어서 폐지했다.

교사추천서의 경우 기존에도 당락을 결정할 만큼의 핵심적인 서류는 아니었다지만, 교사와 학생이 갖는 부담을 덜어주고자 폐지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7) 면접·구술고사 개선

각 대학마다 면접의 방식이 조금씩 다르지만 대부분 제시문 기반 면접과 학생부 확인 면접으로 구분된다. 기존에도 면접 방식은 학생부 기반의 확인 면접을 권장해왔으며 대부분의 대학들도 이미 학생부 확인 면접을 많이 도입해 운영하고 있고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다만 상위권 대학들을 중심으로 제시문 기반의 구술면접을 실시하는 경우가 많은데 강제로 제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므로 지원하는 대학에 따라 현재와 같이 면접이 다를 수 있음을 이해하고 준비해야 할 것이다. 면접이나 논술 등 대학별 고사에 대해서는 이미 선행학습영향평가 등을 통해 고교 교육과정 내에서만 출제하도록 관리하고 있으므로 큰 변화는 없다.

블라인드 면접은 2019학년도 대입부터 다수의 대학들이 이미 도입하여 운영을 시작하였다. 다만 학생부를 보면서 면접을 실시하는 대학의 경우 단순히 성명과 수험번호, 출신고교만을 가린다고 해서 학생의 정보를 완전히 제거한 면접이 될 수 없다는 점에서 구조적인 한계는 있으나, 공정성을 위한 기본적인 요건은 갖추었다고 할 수 있다.

◆ 학생부 기반의 맞춤형 확인 면접 원칙

- 재정지원과 연계, 제시문 기반 구술고사 최소화 유도
- 고교 교육과정을 위반한 경우 시정명령, 모집정지 등 엄중 제재

◆ 대입 블라인드 면접

- 재정 지원과 연계하여 대입 블라인드 면접 도입
- 면접 평가 시 성명, 수험번호, 출신고교 등 미제공

8) 지필고사 개선방안

◆ 수시 적성고사 폐지

- 수능과 유사하고 수시모집의 취지와 위배되는 수시 적성고사 폐지
- 사교육 유발 우려되는 논술전형은 단계적 폐지 유도

적성고사와 논술전형은 학교의 내신성적을 대학별 고사만으로 극복할 수 있는 전형으로 내신이 낮은 학생들에게는 상대적으로 자신의 성적으로 지원하기 힘든 대학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전형이다. 논술의 경우 학생의 사고력을 깊이 있게 측정하는 문항 등을 내세워 수능과는 차별화된 전형으로 자리매김하였지만, 적성고사는 수능과 같은 선다형 문항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정시의 수능중심전형과 차별성이 없어서 대입 간소화 정책에서 가장 먼저 폐지되었다. 적성고사를 실시하던 대학들은 전형을 폐지하면서 모집인원을 다른 전형으로 분산시켜야 하는데, 가천대, 고려대(세종), 수원대 등은 적성전형을 폐지하면서 논술전형을 신설하였다. 매년 사교육 영향이 높다고 나타나는 논술전형은 계속해서 폐지를 유도해 나가겠지만 대학마다 상황이 달라 완전 폐지보다는 일정 수준을 유지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대입제도 개편안〉

구분	'24학년도 이후
수능 전형 비율	16개 대학 수능 40% 이상
수능 최저학력기준	대학 자율(선발 방법 취지 고려)
수능 출제 범위	국어(공통) : 독서, 문학/국어(선택) :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중 택1 수학(공통) : 수학I, 수학II/수학(선택) :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중 택1 영어 : 영어I, 영어II 한국사 : 한국사 탐구(일반) : 계열 구분 없이 택2 (사회 : 9과목/과학 : 8과목/탐구(직업) : 성공적인 직업생활 + 5과목 중 택1) 제2외국어/한문 : 9과목 중 택1
수능 절대평가	영어, 한국사, 제2외국어/한문
수능 EBS 연계율	50% (간접연계 확대)
학생부 기재 개선	2022학년도부터 대입 반영
자기소개서	폐지
교사추천서	폐지
평가과정 투명화	다수 입학사정관 평가 의무화 평가 기준 공개 확대 유도 부정·비리 제재 근거법 규정 신설
선발 결과 공시	대학별·대입 전형별·고교 유형·지역별 합격자 수 공시
면접·구술고사	대학 자율 (최소화 유도)
논술전형	단계적 폐지 유도
적성고사	폐지

〈학교생활기록부 주요 항목 내 비교과 영역(요소) 개선 현황〉

구분	現 고3 (23학년도 대입)	現 고2~고1 (24학년도 대입)
① 교과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목당 500자 방과후학교 활동(수강) 내용 미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과목당 500자 방과후학교 활동(수강) 내용 미기재 영재·발명 교육 실적 대입 미반영
② 종합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간 500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간 500자
③ 비교과 영역	자율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간 500자
	동아리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간 500자 자율 동아리 대입 미반영 청소년 단체 활동 미기재 소논문 기재 금지



구분		現 고3 (23학년도 대입)	現 고2~고1 (24학년도 대입)
	봉사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기사항 미기재 ■ 교내·외 봉사활동 실적 기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기사항 미기재 ■ 개인 봉사활동 실적 대입 미반영 단, 학교 교육 계획에 따라 교사가 지도한 실적은 대입 반영
	진로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간 700자 ■ 진로희망분야 대입 미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간 700자 ■ 진로희망분야 대입 미반영
	수상 경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내 수상 학기당 1건만(3년 간 6건) 대입 반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입 미반영
	독서 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서명과 저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입 미반영

나. 고교교육 혁신 방향

1) 고교학점제 도입

◆ 고교학점제란?

- 진로와 적성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선택 이수하여 누적 학점이 기준에 도달하면 졸업을 인정받는 교육과정 이수 운영 제도

◆ 고교학점제의 효과

- 학생 선택권 보장 - 다양한 과목 개설 - 진로교육
- 학생 참여형 수업 - 교사 자율성과 전문성 보장 - 학생 성장 중심의 평가

◆ 고교학점제의 주요 내용

- 교육과정 : 이수단위를 학점으로 하여 학력(자격) 취득을 위한 총 이수학점, 필수·선택 이수학점 제시
- 평가제도 : 학점 취득을 위한 과목별 성취기준을 설정하고, 수업 중 이루어지는 교사별 평가, 과정 중심 평가 실시·평가 후 성취 수준 미달 시 학업 보충 기회 제공
- 졸업제도 : 출석 일수를 기준으로 하는 학년 단위 진급이나 졸업을 아닌 이수학점을 기준으로 졸업 요건 설정

2022년 기준, 중학교 2·3학년 학생들은 고교학점제의 직접 적용 대상은 아니지만 고등학교에 진학하게 되면 고교학점제 도입 기반을 마련하는 교육부 로드맵 1단계에서 2015 개정교육과정을 적용받게 된다. 2015 개정교육과정은 학생의 진로와 학업 수요를 반영한 선택과목을 편성·운영하며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등을 통해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는데, 이는 교육과정의 설계 과정에서 이미 고교학점제 및 내신 성취평가제 등을 염두에 둔 것이었다.

2015 개정교육과정은 이미 2018학년도에 고등학교에 입학한 학생들부터 적용이 시작되었지만, 대입 전형 개편안이 1년 유예되면서 실질적인 적용은 2019년 고1 학생들부터 본격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고교학점제 역시 전면 도입이 아닌 단계별 적용 로드맵이 새롭게 제시되면서 2019학년도 고1 학생들부터 진로선택과목에 한하여 내신 성취평가의 성적을 대입 전형자료로 제공하는 방안이 결정되었다. 전면 도입이 아닌 진로선택과목에 한정된 점진적인 변화는 2022 대입개편안 내용 중 가장 큰 변화라는 것을 주

목해 볼 필요가 있다.

2022 대입 개편안의 내용에서 수시와 정시 비율을 따지는 것에 이목이 집중되었지만 실질적인 변화는 크지 않은 부분이었다. 반면 고교 내신에서 기존의 상대평가가 아닌 성취도 평가 성적을 대입 전형자료로 제공하기 시작한 것은 일부 과목이라 하더라도 파격적인 변화를 시도한 것이어서 학생과 학부모 입장에서 이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전략적인 접근을 할 수 있어야 한다. 현재 중학교 학생들의 경우 수능에서 기하나 과Ⅱ를 선택하는 것에 대한 고민보다 당장 고등학교에 진학한 이후 내신을 결정하는 교과선택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고교학점제 시행 로드맵 및 이에 따른 예상 변화 내용〉

학점제 정부 로드맵	적용 교육과정	해당 학년	대입 학년도	확정(굵은 글씨) 또는 예상되는 변화 내용
1단계 학점제 도입기반 마련	2015 개정교육과정 현장 안착 (‘18~’21년)	대1	2019 2022	2022 대입 개편 내용 모두 기본 적용 진로선택과목: 성취평가제 적용
		고3	2020 2023	
		고2	2021 2024	
2단계 학점제 부분도입	2015 개정교육과정 일부 개정 (‘22~’24년)	고1	2022 2025	2022 대입 개편 내용 모두 기본 적용 ※ 2015 개정교육과정 일부 개정 과정 (‘18)정책연구→(‘20)일부개정고시→(‘22)고1 적용 → 교육과정 일부 개정 내용 적용(학점 기준 설정) → 이에 따른 대입 제도 일부 수정 개편 가능성 있음 → 학점제 확대 따른 성취평가제 확대 가능성 있음
		중3	2023 2026	
		중2	2024 2027	
3단계 학점제 本格 시행	2022 개정교육과정 적용 (‘25년)	중1	2025 2028	※ 차기 교육과정 개정(학점제 전면 실시 교육과정) (‘20)개발→(‘22.상)개정고시→(‘25)고1적용 → 2022 개정교육과정 : 학점제 전면 실시 → 전면 개방형 선택형 교육과정 가능성 높음 → 내신 성취평가제 전면 실시 가능성 높음 → 수능 절대평가 실시 가능성 높음 → 종합변형 비율 증가 가능성 높음

2022 대입 제도 개편에서 함께 제시된 고교학점제 및 교육과정 그리고 내신 성취평가제 등의 내용변화는 2022년 현재 중학교 1학년 학생들이 고등학교 1학년에 진학하는 2025년에 비로소 완성된다. 따라서 이번에 제시된 고교교육 혁신 방향이 일정대로 진행이 된다면 현재 초등학교 학생들 또한 앞으로의 중등교육과정이 어떻게 바뀌게 되는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2단계 과정에서는 고교학점제의 안착을 위한 과도기로 2015 개정교육과정을 일부 개편하게 되는데, 구체적인 사항은 정해지지 않았다. 그렇지만 교육과정 개편 내용에 따라 대입 제도나 내신 성취평가제 등은 과도기 성격에 맞게 일부 수정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결국 고교학점제가 전면 실시될 2025년까지 교육과정이 어떻게 바뀌어 나갈지 과도기 단계에서의 변화의 폭은 이후 진행되는 상황을 더 지켜보아야 알 수 있다.



고교교육 혁신 방향으로서 고교학점제가 완성되는 3단계의 내용을 보면 미래의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대비하는 국가의 교육 방향이 어느 방향을 향하고 있는지 쉽게 알 수 있다. 속도는 바뀔 수도 있겠지만 마치 개화기에 무수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서양의 문물을 막아낼 수 없었던 것처럼 결국 교육도 사회 변화의 방향을 거스르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어떤 과목을 선택해야 대학을 잘 갈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학생이 스스로 선택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이 이 제도 개편의 가장 기본적인 방향임을 이해하고 학생이 스스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돕는 것이야말로 앞으로의 대입뿐만 아니라 학생을 미래인재로 길러내는 포인트가 될 것이다.

〈내신 성취평가제 내용〉

◆ 진로선택과목 성취도를 대입전형자료로 제공

- ※ 진로선택과목 : 3년 동안 3개 과목 이상 이수 : 고전읽기, 경제수학, 여행지리 등
- ※ 대입정보 제공 안 : 석차등급 및 표준편차 미제공(원점수, 평균, 성취도, 수강자 수 제공)

[진로선택과목 성취도 표기]				
과목	단위수	원점수/ 과목 평균	성취도 (수강자 수)	성취수준 학생 비율
고전 읽기	4	95/70	A (532)	A(32.4%) B(30.9%) C(36.7%)

◆ ('25년~) 모든 과목 성취도를 대입전형자료로 제공

~ (선택) 과목 재구조화 등 학생별 맞춤형 교육과정 전면 개정('25, 고1 대상)

2022학년도 대입부터 진로선택과목은 성취도가 대입에 반영되는 것이다. 물론 기존의 상대평가 교과 성적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성취도 평가 몇 과목의 성적은 평가 반영의 비중이 떨어질 수도 있다. 그러나 학생부종합전형의 경우 전공적합성 측면에서 볼 때 진로선택과목이 성취평가 성적이라 하여 완전히 무시할 수만도 없을 것이다.

일반선택교과와 달리 경쟁 없이 성취도로 성적을 받을 수 있는 진로선택과목은 자사고나 특목고 등 기존에 내신이 불리했던 학교들에서 내신 경쟁을 완화시켜 줄 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다. 기존에 단순히 이수 여부만을 표시하는 성적인 'P'가 아닌 성취도 성적이 A~C까지 구분되어 표시되므로 성적의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다만 진로선택과목의 개수는 역시 제한적일 것이고 여전히 내신 성적은 경쟁으로 구분하는 상대평가 과목이 대부분일 것이기 때문에 과도기인 학점제 로드맵 1단계~2단계에서는 자사고나 특목고가 성취도 평가의 혜택을 크게 누리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Ⅱ

2015
개정교육과정의
이해

2015 개정교육과정의 이해

2.1 2015 개정교육과정 이해

가. 『2015 개정교육과정』의 기본 방향

- 1) 『2015 개정교육과정』은 **모든 학생들이 인문·사회·과학기술에 대한 기초 소양을 함양**하여 인문학적 상상력과 과학기술 창조력을 갖춘 **창의융합형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교육의 근본적인 패러다임을 전환하고자 하는 교육과정이다.

2) 기초 소양 함양을 위해 **고등학교에 『공통과목』을 도입**하였고, **통합적 사고력**을 기르기 위해 **『통합사회』, 『통합과학』 과목을 신설**했다.

3)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핵심역량을 기를 수 있는 교과 교육과정을 개발했다. 각 교과는 단편 지식보다 핵심개념과 원리를 제시하고, **학습량을 적정화하여 토의·토론 수업, 실험·실습 활동 등 학생들이 수업에 직접 참여**하면서 역량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하였다

4) **과정 중심의 평가**가 확대되도록 구성하였다.

5) 대학 입시 중심으로 운영되어 온 고등학교 문·이과 이분화와 수능 과목 중심의 지식 편식 현상을 개선하고자 하였다. 어느 영역으로 진로진학을 결정하든 **문·이과 구분 없이 인문·사회·과학기술에 관한 기초 소양을 갖추** 수 있으며, **진로와 적성에 따라 다양한 『선택과목』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였다.

6) 과도했던 **국어, 수학, 영어의 비중을 적정화**하였다. 기존의 2009 개정교육과정의 경우 교과 총 이수 단위가 180단위인 경우 국어, 수학, 영어를 최대 90단위로 편성이 가능하였으나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는 교과 총 이수 단위가 180단위인 경우 기초 교과 영역에 한국사를 6단위 포함 시켜 국어, 수학, 영어를 최대 84단위로 편성하도록 하였다.

7) 새로운 교육과정이 학교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교과서, 대입제도, 교원 양성 및 연수 체제 등 교육제도 전반에 걸친 개선을 병행 추진하고 있다.

나.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인간상

- 자주적인 사람** : 전인적 성장을 바탕으로 자아정체성을 확립하고 자신의 진로와 삶을 개척하는 사람

창의적인 사람 : 기초 능력의 바탕 위에 다양한 발상과 도전으로 새로운 것을 창출하는 사람

교양있는 사람 : 문화적 소양과 다원적 가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인류 문화를 향유하고 발전시키는 사람

더불어 사는 사람 :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세계와 소통하는 민주 시민으로서 배려와 나눔을 실천하는 사람

다.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제시한 핵심역량

『2015 개정교육과정』은 교과와 창의적체험활동, 그리고 학교생활 전반에 걸쳐 학생의 실제적 삶 속에서 무언가를 할 줄 아는 **실질적인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핵심역량**을 제시하였다.

〈『2015 개정교육과정』의 핵심역량〉

- 자기 관리 역량 - 자아정체성과 자신감을 가지고 자신의 삶과 진로에 필요한 기초 능력과 자질을 갖추어 자기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
- 지식정보처리 역량 -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영역의 지식과 정보를 처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
- 창의적 사고 역량 - 폭넓은 기초 지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전문 분야의 지식, 기술, 경험을 융합적으로 활용하여 새로운 것을 창출하는 능력
- 심미적 감성 역량 - 인간에 대한 공감적 이해와 문화적 감수성을 바탕으로 삶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고 향유할 수 있는 능력
- 의사소통 역량 - 다양한 상황에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하며 존중하는 능력
- 공동체 역량 - 지역·국가·세계 공동체의 구성원에게 요구되는 가치와 태도를 가지고 공동체 발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능력

라. ‘인문학적 소양 교육’을 포함

- 1) 인문학적 소양이란 세상을 보는 안목과 인간을 이해하는 능력을 말한다.
- 2) 인문 소양 교육을 통해 학생들은 인간존중의 가치를 실천하고, 다양성을 존중하며 배려하는 사회인으로 성장한다.
- 3) 인문학적 소양 함양을 위해 문학 교육을 이론이 아닌 감성과 소통 중심의 학습으로 전환하며, **연극 교육 등을 활성화**한다.
- 4) 교과별로 학습 내용에 인문학적 요소를 강화한다.

마. ‘과학기술 소양 교육’을 포함

- 1) 과학기술 소양이란 자연, 인간, 사회와 문명에 대한 과학적 지식을 바탕으로 개인 및 사회적 문제들을 합리적이고 과학적으로 판단하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 2) 과학기술 소양을 기르기 위해 고등학교 과학을 대주체 중심으로 재구조화하여 융·복합적 사고가 가능한 교육내용으로 구성한다. **특히 『과학탐구실험』 과목은 실험·탐구 중심 수업으로 운영**한다.
- 3) 과학기술 인력 양성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이공계 진로를 계획하는 학생들이 과학 교과목을 충실하게 이수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진로 선택과목(7개), 과학계열 과목(12개)을 개설하였다.



바. 소프트웨어(SW) 교육

- 1) 창조경제 시대에 필요한 논리적 사고력과 창의력 증진을 위해 컴퓨터를 이용한 문제 해결 능력을 함양하는 **소프트웨어(SW) 교육을 강화**한다.
- 2) 소프트웨어 교육을 통해 다양한 문제를 창의적이고 효율적으로 해결하는 컴퓨팅 사고력을 함양하고 협업적 문제해결 과정을 통해 의사소통능력,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내용으로 구성한다.
- 3) 소프트웨어의 제작 원리에 대한 이해, 발달 수준에 따른 놀이 중심의 다양한 교수·학습방법과 교육용 도구를 활용한 프로그래밍 체험을 통해 쉽고 재미있게 학습하도록 구성하였다.
 - **고등학교는 심화선택 『정보』 과목을 일반선택 과목으로 전환**하고,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내용을 개편하였다.

사. 『2015 개정교육과정』의 적용 일정

- '18년 3월 : 초1~4학년, 중1학년, 고1학년 적용
 - '19년 3월 : 초1~6학년, 중1~2학년, 고1~2학년 적용
 - '20년 3월 : 초1~고3학년 전 학년 적용
- ※ 국정 17년부터 적용, 감·인정 18년부터 적용

아. 『공통과목』 이해

- 1) 『공통과목』은 문·이과 구분 없이 모든 고등학생들이 배워야 할 필수적인 내용으로 구성하여, 기초 소양을 함양하고 아울러 학생들의 기초 학력을 보장할 수 있도록 구성된 과목이다.
- 2) 『공통과목』은 국어, 수학, 영어, 한국사, 사회, 과학으로 구성되며, 사회와 과학은 통합사회와 통합과학으로 통합적 관점에서 개발하였고, 실험·실습·탐구 중심의 과학교육을 위해 과학탐구실험 과목도 신설하였다.

자. 『공통과목』과 교과별 『필수이수 단위』

- 1) 『공통과목』은 고등학교 단계에서 배워야 할 필수적인 내용으로 구성된 과목이고, 필수이수 단위는 학생들의 교과 간 균형 잡힌 학습을 위해 필요한 해당 교과(군)의 최소 이수 단위를 가리킨다.
- 2) 『공통과목』은 해당 교과별 필수이수 단위 범위 내에서 이수하게 된다. 예를 들어 국어 교과의 필수이수 단위인 10단위를 이수하기 위해, 우선 『공통과목』 ‘국어’(8단위)를 이수한 후에, 개인의 진로나 적성에 따라 일반선택이나 진로선택과목을 추가로 선택하여 이수하게 된다.

〈 2015 개정교육과정 일반고 및 자율고, 특수목적고(괄호 표시) 이수 단위 표 〉

	교과 영역	교과(군)	공통과목(단위)	필수 이수 단위	자율 편성 단위
교과(군)	기초	국어	국어(8)	10	학생의 적성과 진로를 고려하여 편성
		수학	수학(8)	10	
		영어	영어(8)	10	
		한국사	한국사(6)	6	
	탐구	사회 (역사/도덕 포함)	통합사회(8)	10	
		과학	통합과학(8) 과학탐구실험(2)	12	
	체육·예술	체육		10	
		예술		10(5)	
	생활·교양	기술·가정/제2외/ 한문/교양		16(12)	
	소계			94	
창의적 체험활동				24(408시간)	
총 이수 단위				204	

차. 자신의 진로에 맞는 선택과목 수강

- 1) 학생의 진로와 적성에 따른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하도록 선택과목을 『일반선택』과 『진로선택』으로 구분하여 개발하였다.
 - 『일반선택』: 고등학교 단계에서 필요한 각 교과별 학문의 기본적 이해를 바탕으로 한 과목으로, 기본 이수 단위는 5단위이며 2단위 범위 내에서 증감 운영이 가능하다.
 - 『진로선택』: 교과 융합학습, 진로 안내학습, 교과별 심화학습 및 실생활 체험학습 등이 가능한 과목으로, 학생들은 진로선택과목을 통해 심화된 학습이나 자신의 진로에 도움이 되는 과목을 배울 수 있으며, 기본 이수 단위는 5단위이고, 3단위 범위 내에서 증감 운영을 허용하는 등 유연성을 더 부여하였다.
- 2) 학생의 진로나 적성에 따른 과목 선택권을 확대하기 위하여 단위학교에서는 학생의 선택에 따라 진로선택과목을 3과목 이상 이수하도록 편성하여야 한다.
- 3) 모든 학생이 『공통과목』을 필수적으로 이수한 후에는 진로와 적성에 따라 다양한 『선택과목』을 이수할 수 있다.

〈2015 개정교육과정 총론〉

교과 영역	교과(군)	공통과목	선택과목(5단위)	
			일반선택(3~7단위)	진로선택(2~8단위)
기초	국어	국어 (8단위)	독서, 문학,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실용 국어, 심화 국어, 고전 읽기
	수학	수학 (8단위)	수학I, 수학II, 확률과 통계, 미적분	실용 수학, 기하, 경제 수학, 수학 과제 탐구
	영어	영어 (8단위)	영어, 영어II, 영어 회화, 영어독해와 작문	실용 영어, 영어권 문화, 진로 영어, 영미 문학 읽기
	한국사	한국사 (6단위)		
탐구	사회 (역사/ 도덕포함)	통합사회 (8단위)	한국지리, 세계지리, 세계사, 동아시아사, 경제, 정치와 법, 사회·문화, 생활과 윤리, 윤리와 사상	여행지리, 사회문제 탐구, 고전과 윤리
	과학	통합과학 (8단위) / 과학탐구 실험 (2단위)	물리학I, 화학I, 생명과학I, 지구과학I	물리학II, 화학II, 생명과학II, 지구과학II, 과학사, 생활과 과학, 융합과학
체육 · 예술	체육	-	체육, 운동과 건강	스포츠 생활, 체육 탐구
	예술	-	음악, 미술, 연극	음악 연주, 음악 감상과 비평 미술 창작, 미술 감상과 비평
생활 · 교양	기술 · 가정	-	기술·가정, 정보	농업 생명 과학, 공학 일반, 창의 경영, 해양 문화와 기술, 가정과학, 지식재산 일반
	제2 외국어		독일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중국어, 일본어, 러시아어, 아랍어, 베트남어,	독일어II, 프랑스어II, 스페인어II, 중국어II, 일본어II, 러시아어II, 아랍어II, 베트남어II
	한문		한문I	한문II
	교양		과목 상세 생략	

문과, 이과로 양분된 엄격한 과정이 아니라 자신의 진로에 따른 교육과정 이수가 가능하도록 『선택과목』을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이에 따른 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 진로에 따른 과목 선택(예시) 〉

교과군		경상계열(사회 중심)		어문계열(외국어 중심)	
		일반선택	진로선택	일반선택	진로선택
기초	국어	문학, 독서, 언어와 매체	고전 읽기	문학, 독서,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	심화 국어
	수학	수학I, 확률과 통계	경제 수학	수학I, 확률과 통계	
	영어	영어, 영어II	영미문학 읽기	영어, 영어II, 영어 회화	진로 영어, 영미 문학 읽기, 심화 영어(전문)
탐구	사회	세계지리, 세계사, 경제, 사회·문화, 정치와 법	사회문제 탐구, 고전과 윤리, 한국 사회의 이해(전문)	한국지리, 생활과 윤리, 정치와 법	
	과학	물리학I	과학사	생명과학I	
체육·예술		체육, 운동과 건강, 음악, 미술		체육, 운동과 건강, 음악, 미술, 연극	
생활·교양		한문I, 실용 경제, 진로와 직업, 논술		중국어, 한문I, 진로와 직업	중국어 회화(전문), 중국어II

교과군		예술계열(예술 중심)		이공계열(수학, 과학 중심)	
		일반선택	진로선택	일반선택	진로선택
기초	국어	문학, 독서	고전 읽기	문학, 독서, 화법과 작문	
	수학	수학I, 확률과 통계		수학I, 수학II, 미적분	기하, 수학과제 탐구
	영어	영어, 영어 독해와 작문, 영어 회화	영미 문학 읽기, 실용 영어	영어, 영어 독해와 작문, 영어 회화	진로 영어
탐구	사회	한국지리, 생활과 윤리	여행지리	사회·문화	
	과학		융합과학	물리학I, 화학I, 지구과학I	물리학II, 화학II, 지구과학II, 융합과학
체육·예술		체육, 운동과 건강, 음악, 미술, 연극	미술 창작, 드로잉, 매체 미술(전문)	체육, 운동과 건강, 음악, 미술	
생활·교양		일본어, 한문I, 진로와 직업, 철학		기술·가정, 정보, 진로와 직업, 환경	



2.2 진로에 따른 과목 선택의 중요성

2015 개정교육과정에서 학생의 역량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유는 학생이 미래사회에 자신의 진로에 필요한 기회를 스스로 결정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앞서 제시된 2015 개정교육과정의 핵심역량 6가지 중 가장 앞에 제시된 역량은 ‘자기관리역량’인데 그 목적은 자아정체성과 자신감을 가지고 자신의 삶과 진로에 필요한 기초 능력과 자질을 갖추어 자기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데 있다.

대입제도 개편과 고교교육 혁신 방향 역시 모두 이와 같은 목적과 방향을 공유하고 있다. 고교학점제에서 학생의 ‘선택’을 강조하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로 맥락인 것이다. 그리고 이미 수도권 소재 대학에서 가장 선호도가 높은 학생부종합전형 역시 학생이 관심과 흥미를 갖고 선택한 교과목의 이수 여부와 성적을 평가의 중요한 척도로 삼고 있다.

교육부와 각 교육청에서도 2015 개정교육과정의 시작과 함께 학생들이 관심을 가진 교과목을 선택하여 이수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온라인 강의, 타학교 연계형, 지역대학 협력형, 지역 교육시설 활용형 등 다양한 유형의 교육과정을 이미 실시하고 있거나 지원을 고려하고 있다. 고교학점제와 내신성취 평가제 등의 모든 고교교육 혁신 방향 역시 이와 맞물려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대입 전형의 실질적인 결정권을 가진 대학에서는 2015 개정교육과정의 시작과 함께 이전보다 학생 스스로 필요한 과목을 선택하여 수강할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났다고 판단하고 있으며, 이미 각 학과 또는 단과대학별로 해당 계열(또는 학과)에 진학하기 위해 필요한 고등학교에서 선택해 수강해야 할 교과들을 조사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학생부종합전형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이다.

학생부종합전형에 지원할 학생은 고1 때 공통과목을 마친 후 고2와 고3이 되면서 선택하게 되는 일반 선택과 진로선택과목을 자신의 진로에 맞게 설계하여 선택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미리 중학교 때부터 자유학기제를 체험하면서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대해 충분히 고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따라서 중학교 때부터 자신의 진로와 흥미·적성에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고 문제풀이만 한 학생의 경우 고등학교에 진학한 이후 자신에게 맞는 적합한 진로를 선택하고 교과를 설계해 나가는 것이 매우 힘든 일이 될 수밖에 없다. 학생부종합전형을 준비하는 기본은 자신의 진로와 적성 그리고 관심과 흥미를 빨리 발견하고 찾아가는 것이다.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에서는 이미 이에 대비하여 학생들의 진로 선택에 따른 교과 선택을 돕기 위해 가이드북을 만들어 배포하고 있다. 학생들은 이 같은 안내를 잘 참고하여 자신의 진로에 따른 교과목을 선택한다면 보다 수월하게 진로의 방향에 따라 원하는 교육과정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대학에서 배우게 될 전공 관련 필수 이수과목은 학과의 이름만을 가지고 유추하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원하는 전공을 위해 고등학교에서 어떤 과목이 필요할지 알기 위해서 반드시 관심 있는 학과의 커리큘럼을 참고한 후 고교와 대학 교육과정을 서로 연계시켜 보아야 한다. 그리고 교과와 명칭만을 가지고 혼자서 고민할 것이 아니라 진로·진학을 전문으로 담당하는 학교의 선생님 그리고 담임 선생님과 심층적인 상담을 통해 과목을 선택해 나갈 것을 추천한다.

■ 2024 전공 연계 이수 과목(서울대학교)

- 핵심 권장과목: 학과(부)에서 공부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이수를 권장하는 과목
- 권장과목: 학과(부)에서 공부하기 위해 이수를 권장하는 과목
- 권장과목을 제시하지 않은 모집단위는 학생의 진로·적성에 따른 적극적인 선택과목 이수를 권장함

모집단위		핵심 권장과목	권장과목
사회과학 대학	경제학부	-	미적분, 확률과 통계
자연 과학 대학	수리과학부	미적분, 확률과 통계, 기하	-
	통계학과	미적분, 확률과 통계, 기하	-
	물리학· 천문학부	물리학	확률과 통계
		천문학	지구과학II, 물리II, 확률과 통계
	화학부	화학II, 미적분	확률과 통계, 기하
	생명과학부	생명과학II, 미적분	화학II, 확률과 통계, 기하
	지구환경과학부	물리학II or 화학II or 지구과학II, 미적분	확률과 통계, 기하
간호대학		-	생명과학I, 생명과학II
	광역	미적분, 확률과 통계	기하
공과 대학	건설환경공학부	미적분, 기하	확률과 통계
	기계공학부	물리학II, 미적분, 기하	확률과 통계
	재료공학부	미적분, 기하	물리학II, 화학II, 확률과 통계
	전기정보공학부	물리학II, 미적분	확률과 통계, 기하
	컴퓨터공학부	미적분, 확률과 통계	-
	화학생물공학부	물리학II, 미적분, 기하	화학II or 생명과학II
	건축학과	-	미적분
	산업공학과	미적분	확률과 통계
	에너지자원공학과	물리학II, 미적분, 기하	확률과 통계
	원자핵공학과	물리학II, 미적분	-
	조선해양공학과	물리학II, 미적분, 기하	확률과 통계
	항공우주공학과	물리학II, 미적분, 기하	지구과학II, 확률과 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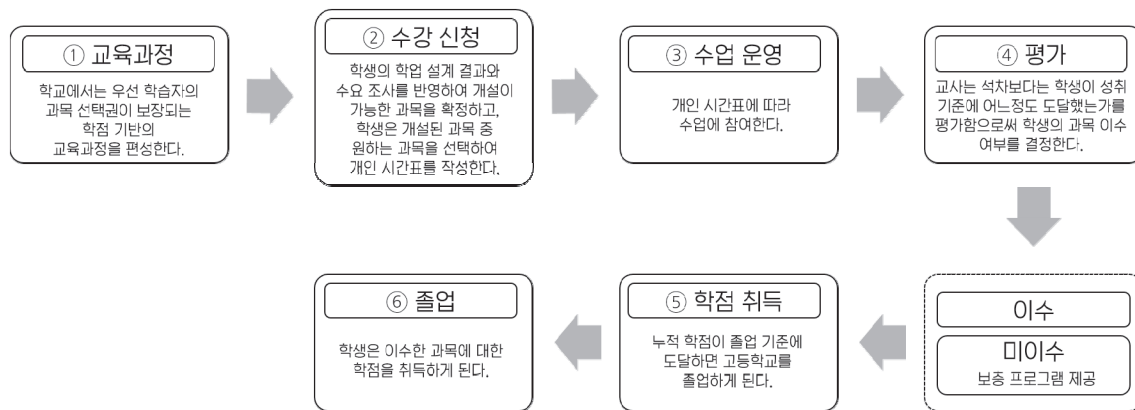


모집단위		핵심 권장과목	권장과목
농업 생명 과학 대학	농경제사회학부	-	미적분, 확률과 통계
	식물생산과학부	생명과학II	화학II, 미적분, 확률과 통계, 기하
	산림과학부	-	-
	식품·동물생명공학부	화학II, 생명과학II	-
	응용생물화학부	화학II, 생명과학II	미적분, 확률과 통계, 기하
	조경·지역시스템공학부	미적분, 기하	물리학II, 확률과 통계
	바이오시스템·소재학부	미적분, 기하	물리학II, 화학II
사범 대학	역사교육과	-	-
	지리교육과	-	한국지리, 세계지리, 여행지리
	윤리교육과	-	-
	수학교육과	미적분, 확률과 통계, 기하	-
	물리교육과	물리학II	미적분, 확률과 통계, 기하
	화학교육과	화학II	미적분, 확률과 통계, 기하
	생물교육과	생명과학II	화학II, 미적분, 확률과 통계
	지구과학교육과	지구과학I	지구과학II, 미적분, 확률과 통계, 기하
	체육교육과	-	-
생활 과학 대학	소비자 아동학부	소비자학	-
		아동가족학	-
	식품영양학과		화학II, 생명과학II
	의류학과		화학II, 생명과학II or 확률과 통계
수의과 대학	수의예과		생명과학II
약학대학	약학 계열		화학II, 생명과학II
의과대학	의예과		생명과학II, 미적분, 확률과 통계, 기하
자유전공학부		-	미적분, 확률과 통계

2.3 고교학점제의 이해

가. 고교학점제란?

학생이 진로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선택·이수하고 누적 학점이 기준에 도달할 경우 졸업을 인정받는 교육과정 이수·운영 제도이다.



나. 고교학점제로 인한 변화

1) 고등학교의 수업·학사 운영 기준이 ‘단위’에서 ‘학점’으로 전환된다.

- 학습량 적정화와 학사 운영 유연성 제고를 위해 졸업 기준이 204단위에서 192학점으로 조정
- (현행) 교과 180단위, 창의적체험활동(창체) 24단위 → (이후) 교과 174학점, 창체 18학점

2) 학생의 과목 선택권을 높이기 위해 고등학교 과목 구조를 개편한다.

- 주로 특목고에서 개설한 전문교과를 보통교과로 편제
- 선택과목을 일반·융합·진로 과목으로 편성할 예정(세부사항은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 결정)



〈 고교 과목 구조 비교 〉

▼ 현행 고교 과목구조

교과	과목
보통 교과	공통과목
	일반선택과목
	진로선택과목
전문 교과	전문교과(심화과목)
	전문교과(직업과목)



▼ 개편안(고교학점제 시행 후)

교과	과목	
보통 교과	공통과목	
	선택 과목	일반선택과목
		융합선택과목
		진로선택과목
전문교과	전문공통/전공일반/전공실무	

* 과학, 체육, 예술, 외국어, 국제 계열의 심화 과목

- 공통 및 선택과목 이수 경로 예시

A : 수학(공통) ⇒ 미적분/확률과 통계(일반선택) ⇒ 인공지능 수학/심화수학(융합 또는 진로선택)

B : 통합사회(공통) ⇒ 세계지리/경제(일반선택) ⇒ 사회문제 탐구/국제정치(융합 또는 진로선택)

3) 학점 이수 기반의 학사운영으로 바뀐다.

- 고교학점제가 시행되면 학점 기반의 졸업제도가 도입

- 학생이 과목을 이수하여 학점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과목 출석률(수업횟수의 2/3이상)과 학업 성취율(40%이상)을 충족해야 하며, 3년간 누적 학점이 192학점 이상이어야 졸업이 가능

▼ 현행

성취율	성취도
90%이상	A
80%이상 ~ 90% 미만	B
70% 이상 ~ 80%미만	C
60% 이상 ~ 70% 미만	D
60% 미만	E



▼ 향후(고교학점제 시행 후)

성취율	성취도	
90%이상	A	
80%이상 ~ 90% 미만	B	
70% 이상 ~ 80%미만	C	
60% 이상 ~ 70% 미만	D	
40% 이상 ~ 60%미만	E	↑ 이수
40% 미만	I	↓ 미이수

* 미이수 과목에 통상 F학점을 부여하나, 단어의 의미(Fail)를 고려하여 I(Incomplete) 사용

- 미이수 학생이 발생한 경우에는 '보충 이수'를 통해 학점을 취득

- 보충 이수는 개별 학교 또는 교육(지원)청 프로그램, 온라인 과정 활용 등 다양한 방법으로 운영, 보충 이수 후 부여되는 성적에 상한을 둠(미이수→보충 이수→성취도 E)

4) 성취평가제를 모든 선택과목으로 확대 도입한다.

- 보통교과 진로선택과목에 적용되고 있는 성취평가제를 2025학년도(고1~)부터 모든 선택과목으로 확대 도입하여, 학생들의 학업 성취수준을 보다 정확하게 평가받을 수 있도록 함

〈 고교 내신성적 산출 방식의 변화(보통교과) 〉

▼ 현행(2019~)

교과	성적 산출
공통과목 일반선택과목	성취도(A,B,C,D,E), 석차등급 병기
진로선택과목	성취도(A,B,C) 표기



▼ 향후(2025~)

교과	성적 산출
공통과목	성취도(A,B,C,D,E,I), 석차등급 병기
선택과목 (일반/융합/진로)	성취도(A,B,C,D,E,I) 표기

※ 단, ‘체육·예술’은 성취도 3단계 외 모두 미산출, ‘교양’은 P(이수) 외 모두 미산출(현행 방식 유지)

〈 성취평가제 확대(2025학년도~)에 따른 성적 산출 방식(예시) 〉

과목명	학점 수	원점수/과목 평균	성취도(수강자 수)	성취도별 학생 비율
정치와 법	4	85/64.4	B(55)	A(7.3), B(30.9), C(12.7) D(30.9), E(1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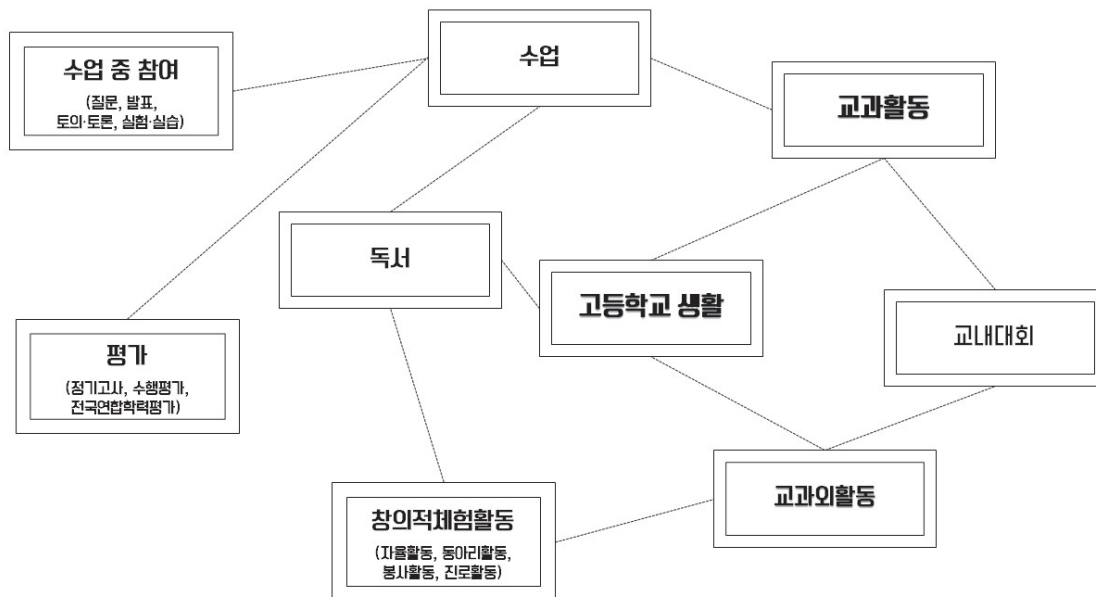
Ⅲ

고등학교 학교생활 안내

고등학교 학교생활 안내

3.1 고등학교 생활 안내

고등학교 생활은 크게 교과활동과 교과외활동으로 나눌 수 있다. 교과와 관련된 활동으로는 수업, 시험, 독서, 교내대회 등이 있는데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수업이다. 대학은 학생이 수업에 어떤 모습으로 참여했는지, 수업 내용에 따른 각종 시험들을 잘 치르는지, 수업과 관련하여 어떤 책을 읽었는지를 확인하기 때문이다. 교과외활동은 창의적체험활동으로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이 대표적이다.



한 학생의 고등학교 생활을 알고 싶다면 ‘학교생활기록부(이하 학생부)’를 들여다보면 된다.

가. 교과활동

수업에 충실히 참여해야 한다. 최근 수업은 질문이 살아있고, 발표와 토의·토론으로 내용을 정리하고, 실험·실습으로 확인하는 형태로 바뀌고 있다. 수업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하는가에 따라 선생님에게는 학생에 대한 관찰 정보가 달라지고 학생에게는 시험 결과가 달라진다. 수업 관련 수행평가는 학생의 지적호기심과 탐구심을 잘 드러낼 수 있기에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의 핵심 기록이 될 수 있다. 배운 내용을 심화시키고 스스로 탐구하는 데에 교과 관련 독서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

나. 교과외활동

창의적체험활동은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으로 구성된다. 이 활동은 자신의 진로와 관련지어 학생 스스로 무엇을 얼마나 할지 구성할 수도 있다. 교내대회는 학년 초에 받는 연간계획표에 따라 진행된다. 학생 스스로 하는 가장 좋은 활동은 독서로 일반적으로 많이 알려진 권장도서뿐만 아니라, 관심 분야에 대한 다양하고 수준 높은 독서가 필요하다. 이 외에 지원 희망 대학 홈페이지를 수시로 방문하면서 진로 탐색 및 입시정보를 수집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대학에서 진행하는 고교대학 연계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도 좋은 교외활동이다.

다. 학생부의 중요성

학교생활기록부는 학생의 학습경험과 개인별 경험이 연간 누적 기록되는 공식 문서이다. 일반적으로 학교생활기록부를 중심으로 대입을 준비하는데, 대학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의미 있는 학생부가 필요하다. 고등학교 생활을 하면서 수업에 집중한다고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은 의미가 없다. 교내 행사에 참가하는 데 의의를 두면 의미는 만들어지지 않는다. 학생부의 의미는 ‘노력하고 변화하고 성장한 나의 모습’에서 나타난다. 학교 활동에 주도적,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자신의 활동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록하는 습관이 중요하다. 선생님과의 만남에서는 자신의 성장을 보여주어야 한다.

대학입시에서도 ‘학교생활기록부를 충실하게 관리해서 수시모집 활용의 폭을 넓히자’는 것과 ‘수시모집에서는 학생부를 주요 전형요소로 활용하고, 정시에서는 수능 위주로 선발하라’는 흐름은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수시에서 학생부교과전형을 통해 선발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다. 따라서 학생부 교과 성적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내신을 잘 받기 위한 학교 공부는 수능 준비에도 큰 도움이 되고, 수시모집 학생부종합전형의 준비에도 도움이 된다. 학생들이 선호하는 서울 소재 대학들은 학생부교과전형과 학생부종합전형을 통해 선발하는 인원이 많다. 학생부 관리가 잘 되어야 대입에서 많은 선택지를 가질 수 있다.

1) 학생부종합전형의 이해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한 논란이 있지만, 대학 진학에서 학생부종합전형의 중요도는 여전히 높다. 대학들의 연구 결과, 학생부종합전형을 통해 선발한 학생들이 입학 후 학업성취도와 전공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면서 대학들이 해당 전형에 주목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전 입학사정관제에서는 내신 성적이 매우 낮아도 스펙이 탄탄하면 합격하는 사례가 많았다. 예를 들어, 내신 평균이 6등급인데 외부활동으로 로봇 만들기 활동을 해서 큰 상을 받은 스펙을 갖고 있으면 합격이 가능했다. 하지만 외부활동이 배제된 현재의 학생부종합전형에서는 학생부교과 성적(내신)과 수업 내 활동 상황을 알 수 있는 수업 중 교과활동이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되었다. 즉 차분하게 수업에 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수업참여 중 활동력, 협업, 발표 등도 매우 중요함을 깨달아야 한다.

2) 좋은 학생부 비교과 기록의 조건

모든 대학이 학생부종합전형으로 학생을 선발하진 않지만 서울의 상위권 대학을 준비하는 학생이라면 학생부종합전형을 간과하고 입시를 생각할 수 없다. 정시전형이 늘어나는 추세라고 해도 학생부 위주 전형은 여전히 중요하다. 따라서 학생부종합전형 준비는 주요 대학들이 소개하고 있는 학생부종합전형의 평가 방법과 내용에 대한 이해가 우선되어야 한다. 이 요소를 통해 대학이 선발하고 싶은 학생의 모습을



들여다 볼 수 있다.

학생부종합전형의 평가 방법은 각 대학마다 차이가 있지만 대부분 1단계는 서류평가, 2단계는 면접을 통해 서류에 대한 확인을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여기서 서류는 학교생활기록부이다. 서류가 중요한 이유는 1단계를 통과하지 못하면 바로 탈락해 면접의 기회조차 주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전형 간소화로 인해 면접 없이 서류만으로 평가하는 대학도 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학생부종합전형은 학생부 중심의 전형이라는 것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다음은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수시모집 전체 인원을 선발하는 서울대학교의 학생부종합전형 서류평가 요소이다.

종합 평가	학업 능력	교과학습 발달상황 (교과목 이수현황, 교과성취도, 교과별 학습활동 및 과제수행 내용) 창의적체험활동(학업 관련 동아리활동, 탐구활동)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학업 태도	교과학습 발달상황(수업참여도 및 태도, 심화과목 선택 노력 등) 창의적체험활동(동아리, 진로 관련 활동 참여도 및 노력, 탐구활동)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학업 외 소양	창의적 체험활동(동아리 및 자율활동에서 드러난 리더십, 책임감, 공동체의식, 봉사활동에서 나타난 배려심 등)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출결상황

〈출처 : 2023 서울대학교 학생부종합전형 안내 책자〉

여기에서도 알 수 있듯이 평가요소를 살펴보면 서류 기록물 중 학생부의 내용이 가장 중요한 것을 알 수 있다. 학생, 교사, 학부모 모두가 학생부 작성에 집중하는 이유이다.

특히 교과와 비교과로 이뤄진 학생부에서 쉽게 올리기 힘든 교과 성적에 비해 검증이 쉽지 않고 기록이 자유로운 비교과기록을 어떻게 더 잘 작성할지에 집중해야 한다. 학생부종합전형에서 위력을 발휘하는 좋은 학생부는 ‘잘 기록된 학생부’가 아닌 ‘잘 활동한 학생’의 내용이 담긴 것이다. 왜냐하면 학생부는 학생의 실제 활동에 의해 만들어진 기록물이기 때문이다.

학생부종합전형 연구는 이제 그 학생부의 진정성을 어떻게 잘 검증할 수 있는지에 관심을 가지고 발전하고 있다. 앞으로 학생부종합전형을 준비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학생이 스스로 호기심을 가지고,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계획하고, 스스로 도전하고, 스스로 열정을 갖는 것이다. 진정성 없는 활동으로 기록된 학생부는 아무리 그럴듯한 스펙으로 무장하더라도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3.2 학생부는 무엇인가?

가. 학교생활기록부의 정의

학교생활기록부(이하 학생부)는 학교의 교육계획이나 교육과정에 따라 학교에서 실시한 각종 교육활동을 학생의 이수 상황(활동내용에 따른 개별적 특성이 드러나는 사항 중심)을 중심으로 학생의 교육 활동 결과를 학생의 담임교사, 교과 담당교사, 동아리 담당교사 등 학생을 가르친 모든 교사가 학생 개인의 특성이 잘 나타나도록 객관적 사실에 근거해 구체적으로 기록한 서류이다.

나. 학생부 항목별 내용(2024학년도 이후)

연번	항목	내용
1	인적&학적사항	성별, 주소, 전학 상황
2	출결상황	질병·미인정·기타
3	수상경력	교내상만 기록(대입전형 자료로 미제공)
4	자격증 및 인증 취득상황	자격증 및 인증 내용(제한 있음) (대입전형 자료로 미제공)
5	창의적체험활동 상황 (봉사활동 실적 포함)	자율, 동아리, 봉사, 진로 활동 내용 기록 (자율동아리 및 개인 봉사활동 실적 대입전형 자료로 미제공)
6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각 과목별 담당 교과목 교사가 수업 태도, 학업 역량에 대해 기록(방과 후 학교 참여 상황 미기재)
7	독서활동 상황	전공 관련 독서 활동의 내용 기록 (독서활동 상황 대입전형 자료로 미제공)
8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	1, 2학년 담임교사의 추천서와 같은 역할

다. 학생부종합전형, 학생부교과, 비교과 평가 영역 및 내용

영역	평가 요소	평가 내용
교과 관련 활동	전체 교과 성적	상위 등급 과목은 몇 개나 있는가?
	학년별 교과 성적 추이	3개년 동안 전 과목 평균 등급이 향상되었는가?
	학업 관련 탐구 활동	전공 관련 과목의 평균 등급 성적은 우수한가?
	전공 관련 교내 활동	전공 관련 교내 활동 참여도가 높은가?
	자기주도학습	심화 학습, 주제 탐구 과정에서 자기주도적 학습을 하였는가?



영역		평가 요소	평가 내용
비 교 과	창의적 체험 활동	자율활동	적극성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참여했는가?
		동아리활동	전공 관련 동아리 활동을 지속적이고 주도적으로 하였는가?
		봉사활동	진정성 있고 지속적인 봉사활동을 하여, 태도의 변화가 있었는가?
		진로 탐색·체험활동	진로 목표가 뚜렷하고, 진로 탐색 활동을 하였는가?
	학교 생활 충실도 및 인· 적성	공동체 의식과 협동심	학교행사/학급행사 등에서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였는가?
		리더십	학교/학급 등에서 임원을 맡아 실적을 남겼는가?
		학업 의지	5개 학기 동안 개근하면서 계획한 학습 목표를 달성하였는가?
		교우관계 및 의사소통능력	학생부 행동특성 및 종합의견란에 교우관계 / 의사소통 능력
		인성 평가	학교생활 중 학교폭력 문제 해결을 위해 배려, 나눔, 협력, 갈등 관 리, 규칙 준수, 타인 존중, 관계 지향성 등을 실천한 사례가 있는가?

3.3 학생부 어떻게 완성하나?

가. 출결상황

출결상황은 학생부종합전형 평가에서 중요한 평가의 기준이 되는 사항이다. 특히 성실성 평가에서 중요하다. 종합전형을 준비하는 학생들 중 가끔 미인정 조퇴나 미인정 지각 심지어는 미인정 결석이 기록되어 있는 학생들을 볼 수 있다. 만약 이런 사항이 있는 경우에 특별히 면접에서 미인정 지각이나 결석에 대한 사유를 언급하지 않을 경우 성실성이나 자기주도성에서 부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1학년 때 미인정 결석이 3회 기록되어 있는 학생의 경우 진로에 대한 고민과 부모님과의 갈등 때문에 ‘미인정 결석’을 했다는 사실을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언급할 수 있는 적극성이 필요하다. 대학에 따라 교과전형에서는 미인정 결석 4회 이상 시 감점하는 경우도 있다.

나. 수상경력

학생부의 수상경력은 ‘교과학습발달상황’과 더불어 학생의 학업능력을 평가하는 중요한 자료이다. 하지만 대입 전형 자료로 제공되지 않는다. 자신이 지원하고자 하는 모집단위와 연관된 수상실적이 있다면 자기개발의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다. 창의적체험활동 상황

창의적체험활동 중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 등에서 학생의 학업 관련 우수성이 드러난다면 평가 대상이 될 수 있다. 탐구활동, 연구활동 등의 학내 활동을 통해 드러나는 우수성을 볼 수 있는 부분이다. 단, 동아리에서 ‘농구반’보다 ‘심화 수학반’이 의미 있다는 것은 아니다. 창의적체험활동 중 학업 외적인 부분에서 충실히 활동했다면 학생의 개인적 특성과 학업 외 소양 부분에서 그 우수성을 판단할 수 있기에 모든 활동이 전공 관련이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또, 탐구활동이나 연구활동이 가능한 학교가 있지만 그렇지 않은 학교도 많다. 때문에 탐구활동이나 연구활동 경험의 유무로 학생을 판단하지 않는다. 연구활동이 어려운 환경이라면, 주어진 여건 내에서 자신의 학업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한 부분을 평가하려는 것이다. 자신이 어떤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는지가 중요한 것임을 기억하자.

창의적체험활동 상황의 실적은 한 개 영역에 입력하고, 다른 영역에 중복하여 입력하지 않는다. 특기사항에는 활동실적(내용)의 단순한 나열식 입력은 지양하며, 구체적인 특정 대학명, 기관명, 상호명, 강사명은 입력하지 않는다.

1) 창의적체험활동 기재 예시

학년	창의적체험활동 상황		
	영역	시간	특기사항
1	자율 활동	28	<p>학급반장(2023.03.02.~2023.02.28.)으로서 책임감과 봉사정신을 가지고 급우들의 의견을 존중하여 학급 문제를 해결하며 학급 전체의 인화를 위해 노력함. 학교폭력예방다짐결의활동(2023.04.05.)에서 예방방안에 대해 학급대표로 발표하였으며, 흡연예방교육(2023.06.14.) 동영상 시청한 후 교내에서 실시한 흡연예방 캠페인에 직접 참여하여 학생들에게 적극 홍보함.</p> <p>학교 축제(2023.09.20.)에서 1부 사회를 맡아 축제의 시작을 매끄럽게 이끌었으며, 전반적인 행사 준비 과정에서 ‘축제 준비 위원’으로 활동하며 성공적인 축제를 위해 노력하였음.</p> <p>교내합창제(2023.10.10.)에서 알토 파트장을 맡아 파트원들의 참여를 독려하여 환상적인 하모니를 만들어 냄.</p>
	동아리 활동	34	(애니메이션 그리기반) (34시간) ‘상상화 그리기’와 ‘미래의 자동차 디자인하기’ 활동에서 기발한 상상력과 과학적 아이디어를 잘 표현하고 자신의 그림을 조리 있게 설명함. 학교 ‘벽화 그리기’에서 친구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작품의 완성도를 높이고 공동 작업을 통해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임.
	봉사 활동		
	진로 활동		<p>성품이 따뜻하고 주변을 돌보는 것을 좋아하며, 창의력이 높아 유치원교사의 진로를 희망함.</p> <p>교내에서 실시한 직업적성검사(2023.03.18.)를 통해 자신이 예술가형과 진취형의 특성을 좀 더 많이 지니고 있음을 알게 되어 문화를 통한 삶의 질 향상 관련 직업에 관심을 갖고 구체적인 탐색 노력을 하고 있음.</p> <p>꿈을 찾아 떠나는 직업순환체험(2023.06.18.)에 참가하여 다양한 직업의 세계를 체험하고 스스로의 흥미와 적성을 파악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으나 아직 직업에 대한 생각이 다양하여 이에 대해 상담 조언함.</p>



2) 동아리활동

- 학교교육계획에 의한 자율동아리 구성 절차(→)

담당 부서	학생	담당 부서	담당 부서	학생/지도교사
학교교육계획에 자율동아리 운영 계획 수립	동아리 구성, 지도교사 섭외, 동아리 운영계획서 작성 및 제출	동아리 담당교사 취합 및 결재	학교장 승인, 교육정보 시스템에 자율동아리 부서명 등록	동아리활동 전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 자율동아리 운영계획서는 활동계획, 동아리 구성 인원, 지도교사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음.

- 동아리활동 Q&A

Q : 동아리활동은 지원 모집단위 관련 학문 분야와 일치해야 유리한가요?

A : 동아리활동과 모집단위가 일치하지 않는다고 불리하지 않다.

창의적체험활동 내에서의 동아리활동은 학생의 소양을 넓히는 기회다. 학습동아리, 체육동아리, 예술동아리, 봉사동아리 등 지원자가 선택한 동아리의 종류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동아리활동을 통해 학생이 무엇을 배우고 어떻게 성장하였는지에 관심을 기울인다. 따라서 동아리활동이 지원 모집단위와 일치해야 유리한 것은 아니다.

〈출처 : 서울대 학생부종합전형 안내〉

- 리더십 Q&A

Q : 학생회장, 부회장 등의 리더십 경험이 없으면 불리한가요?

A : 리더 역할 경험의 유무에 따라 학생들을 높게, 혹은 낮게 평가하지 않는다. 리더십은 반드시 학생 회장, 부회장, 동아리회장 등 대표자로 활동하는 것에서만 찾을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어떤 직책을 맡았는지보다는 어떤 경험 속에서 리더십을 발휘하고, 리더로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를 고려하여 평가한다.

〈출처 : 인하대 학생부종합전형 Q&A〉

3) 봉사활동

봉사활동은 학교 계획에 의한 봉사활동과 학생 개인 계획에 의한 봉사활동을 기록할 수 있으나, 2024 학년도부터 대입전형에 개인 봉사활동 실적은 제공되지 않는다. 학교 봉사활동 실적만 제공되기 때문에 학교 봉사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필요가 있다.

4) 교과학습발달상황

교과학습발달상황은 크게 2가지 부분으로 나뉜다. 중간고사(1차 지필)와 기말고사(2차 지필)의 성적을 수치로 기록하는 항목과 학습과 관련해 특별한 사항을 서술 기록하는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란으로

구분된다.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성적 관련 성취 정도를 기록한다고 해도 모의고사(전국연합학력평가 포함) 관련 원점수, 석차, 석차등급은 입력할 수 없다.

교과학습발달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학년별 내신성적의 기록이다. 학생부종합평가에서는 성적이 정량평가가 아닌 정성평가로 이뤄지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내신등급이 3등급인 A, B 두 명의 학생이 있다. 학생 A는 학년별로 2, 3, 4등급으로 평균 내신이 3등급이고 학생 B는 반대로 1학년 때 4등급, 2학년 때 3등급 그리고 3학년 1학기 때 2등급으로 평균 3등급을 기록하고 있다. 평균은 모두 같지만, 평가에서는 완전히 다르게 평가된다. 성적 향상의 흐름도가 학생부종합전형 평가에서는 중요하기 때문이다. 성적 향상도가 두드러진 학생의 경우는 ‘자기주도성’과 ‘발전가능성’에서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성적의 기록과 관련한 중요한 정성평가 요소는 모집단위와 연관된 성적의 기록이다. 예를 들어 작가가 꿈인 학생이 국어성적에서 떨어지지 않으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없다. 이처럼 교과발달상황의 기록에서 숫자는 단순한 기록 이상의 많은 평가요소를 포함하고 있다.

구분	1학년	2학년	3학년	평균
학생 A	2	3	4	3
학생 B	4	3	2	3

* 평균은 동일하지만 대학별 반영방법과 비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학생부교과전형)

* 성적 향상도가 두드러진 학생의 경우 자기주도성, 발전가능성 평가가 높다. (학생부종합전형)

- 교과학습발달상황 Q&A

Q : 학년별 교과 성적의 추이는 향상되어야 하나요?

A : 성적이 향상되면 떨어지는 것보다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는 있지만, 반드시 교과성적이 향상되었다고 해서 합격을 하고, 성적이 하락하였다고 해서 불합격하는 것은 아니다. 평가자는 고학년이 될수록 동일과목의 수강자가 적어지고, 계열 구분으로 인해 좋은 성적을 거두기 힘들다는 환경을 충분히 염두에 두고 평가한다. 일반적으로 꾸준한 성적을 유지하거나 성적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성적을 유지하거나 향상시키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는 성실한 모습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Q : 서류평가 시 학생부 교과영역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A : 학생부종합평가는 기본적으로 ‘정성평가’를 원칙으로 한다. 학생부종합전형은 단순히 내신성적 평균만으로 지원자를 줄 세워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평가 자료를 통해 판단한다. 학교별로 교과 등급뿐 아니라 수강자 수, 이수 교과목, 원점수와 평균, 표준편차 등을 고려하여 평가하며, 학년별 성적 추이, 전공 관련 교과 이수 및 성적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출처 : 인하대 학생부종합전형 Q&A〉

5)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교과 수업시간, 방과 후 학교, 연구과제 수행, 학업능력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록된다. 행동발달 및 종합의견이 추천서를 대신할 수 있듯이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은 교과 담당교사의 과목별 추천서라고 생각하면 된다. 따라서 교과 수업시간과 방과 후 수업에 열심히 참여해 학교생활기록부에 자신의 학업능력이 기록이 되도록 하면 좋다.



-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Q&A

Q1 : 지원 모집단위가 고교 교육과정과 직접적으로 연계되어 있지 않은 모집단위의 경우 어떤 교과와 활동을 중요하게 평가하나요?

A1 : 대학에 개설되어있는 전공은 모두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한다. 인문계열이라면 국어, 영어, 사회는 기본이고 수학, 과학, 기타 여러 과목을 통해 대학공부에 기본이 되는 교과 지식, 학습 방법 등을 습득하게 된다. 자연계열의 경우 어떤 대학 전공도 수학, 과학이 기본이 되지 않는 경우는 없다. 따라서 고등학교 교과목과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모집단위라 할지라도 고등학교에 개설되어있는 여러 교과목을 배웠던 과정과 성취가 중요하다.

〈출처 : 인하대 학생부종합전형 Q&A〉

Q2 : 학생부종합전형에서 학업능력은 어떻게 파악하나요?

A2 : 학생들의 학업능력은 교과 공부뿐 아니라 교내 탐구 활동이나 교과 관련 동아리 활동 등을 통해서도 향상되고 검증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교는 고등학교 소개 자료를 통해서 지원자의 출신 학교들에 대한 다양한 교육 환경을 먼저 파악한다. 그리고 학생부의 세부적인 항목들을 통해서 지원자의 학업능력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모으고, 이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서로 다른 교육 환경과 교육과정에서 얻은 성적을 단순히 수치상으로 비교하는 것은 지원자의 학업능력을 제대로 평가하는 정보가 될 수 없다. 예를 들어서 수강자가 400명인 과목에서 1등급을 받은 A학생의 성적과 수강자가 14명인 과목에서 1등급을 받은 B학생의 성적을 단순히 비교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이런 한계를 보완할 수 있는 여러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이다. 예를 들어, 과학 교과 이론 수업에서는 비슷한 수준이라고 여겨지던 학생이 실험 수업에서 실험 설계 능력이나 문제 해결 능력 등의 우수성이 드러난다면 단순히 교과 성적의 수치로 확인할 수 없는 학생의 우수성을 판단할 수 있는 근거 자료가 되는 것이다.

〈 출처: EBS 입시Q&A〉

Q3 : 학생부 교과학습발달상황 중 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 사항은 중요한가요?

A3 : 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 사항은 다른 학생들과 구별되는 교과와 관련된 ‘자신만의’ 이야기를 보여줄 수 있는 항목이다. 학생은 이 항목에 자신의 교과와 관련된 학업 역량과 학업 발전가능성 혹은 교과와 관련된 학업 적성 등이 기록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출처: EBS 입시Q&A〉

6) 독서활동 상황

학생부종합전형에서 중요하게 평가하는 것은 진로와의 연관성과 모집 전공단위와의 관련 있는 독서활동의 기록이다. 2024학년도부터 독서활동 상황은 대입에 반영되지 않는다. 하지만, 학교 교육활동의 일환으로 활용한 독서활동은 교과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과 창의적체험활동 특기사항에 기재할 수 있으므로 꾸준한 독서가 필요하다.

IV

과목별 학습법

과목별 학습법

4.1 국어

국어는 모든 교과와 기본이 되는 도구 과목이자, 대학 입시에서 중요한 평가 지표로 활용되는 매우 중요한 과목이다. 특히 입시에 있어서 국어의 영향력은 최근 몇 년간 다른 과목에 비해 크게 부상하였으며, 수능에서 상위권 진입의 관건이 되는 과목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학생부 반영 방식이 대폭 변화되는 2024학년도 입시부터는 수시에서도 수능의 영향력이 강화되기 때문에, 입시에서 성공하려면 내신과 수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아야 한다. 때문에 고등학교 입학 전부터 국어의 기초를 제대로 잡아서 어려운 수능 국어에 반드시 대비할 수 있어야 한다.

고등학교 내신 국어의 경우 학교 선생님의 수업을 성실하게 듣고 시험 범위 내의 지식을 암기하고 심화된 지식과 문제 풀이에 대비하여 비교적 짧은 시간을 투자해도 1등급을 노릴 수 있지만, 수능 국어는 단 시간에 대비하기 어려우며 사고력과 응용력을 측정하는 문항이 교육과정 전 범위를 대상으로 출제되기 때문에 내신 국어와는 다른 학습전략이 필요하다. 따라서 처음부터 제대로 된 방향을 설정하여 효과적이고 전략적인 수능 국어 공부를 해야 한다.

가. 국어 교과의 본질 : 고교 입학 전부터 대비해야 하는 국어

국어 교과는 개념을 암기하고 그 내용을 그대로 문제에 적용하는 과목이 아니다. 글을 제한 시간 내에 읽고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독해력, 읽은 내용을 분석하여 문제에 적용하는 사고력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져 있어야 하는데, 이 능력이 고3 1년 동안 단기간에 길러지기는 어렵다. 때문에, 수험생들이 고3이 되어 공부를 해도 등급에 변화가 없어 가장 고전하는 과목이라고 한다.

수능 공부는 고2 때부터 천천히 혹은 고2 겨울방학부터 본격적으로 하면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나, 수능 국어에 대한 대비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 특히 공통과목인 독서나 문학의 경우 단기간에 독해력과 사고력을 올리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고교 입학 전 중3 시기 또는 고1, 2학년 때 내신 관리와 함께 반드시 수능 국어의 기초 공부를 병행하여야 한다.

나. 고등학교 내신 1등급 받는 학습법

내신은 전적으로 선생님께서 설명해주시는 모든 내용을 다 소화하겠다는 태도로 수업을 열심히 듣는 것이 최우선이다. 학교 수업을 열심히 듣고 이를 정확히 이해해내고, 시험에 출제될 만한 어려운 내용까지 전부 대비할 수 있는 묘안이 있는 걸까? 요즘 고등학교의 내신은 교과서의 내용을 단순히 암기하거나 하는 쉬운 수준으로 출제되지 않는다. 많은 학교의 내신등급 경쟁이 매우 치열하기에 수능 수준의 사고력

을 필요로 하는 응용문제가 적절히 배치되기 때문이다. 응용문제 풀이를 위해 도움이 될 만한 강의들을 활용 해보자.

1) 문학 작품 해설 강의

고1~2학년 1학기에 많이 선택하는 문학의 경우 문학 작품에 대한 정확하고 꼼꼼한 이해, 연관된 외부 지문에 대한 대비, 수능형 보기 문제에 대한 대비가 중요하다. EBSi에서는 검색창에 문학 작품의 제목만 검색해도 해당 작품의 강의를 검색 결과로 제공되며, 작품 해설뿐만 아니라 관련된 다른 작품 및 문제까지도 확인해 볼 수 있다. 교과서와 수업 학습지의 내용을 단권화해서 정리하고, 작품의 심화 해설, 외부 지문에 대한 정보, 문학사적 배경 지식 등을 추가해 놓으면 내신에 100% 대비할 수 있는 자신만의 훌륭한 노트가 만들어질 것이다. 이를 이용한다면 유료 사이트에서 문제를 구매하기 위해 애쓰지 않아도 다양한 외부 작품과 문제에 대한 충분한 대비가 가능하다.

2) 언어 개념 및 문제 풀이 강의

고1 국어 교과서에는 출판사를 막론하고 언어 개념 단원이 있으며, 고2 2학기 때 언어와 매체를 선택하는 학교도 있다. 특히 고1 국어 내신의 경우, 어려운 문항에는 언어 단원에서 많이 출제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언어의 기본 및 심화 개념을 이해하고 다양한 예시를 접해보고, 응용문제를 대비해야만 한다. 개념 정립과 문제풀이 대비가 교과서에서 제시하는 개념이나 예시만으로 부족하다고 생각되면, 고1 일지라도 수능개념 및 수능 기출문제, 수능 교재의 문제를 풀어보는 것을 추천한다.

3) 수행평가 대비

고등학교 내신등급 산출은 학기별 지필평가와 수행평가의 합산으로 결정된다. 주요과목의 경우 수행평가의 비중이 적으면 20%부터 많게는 50%까지로, 수행평가 점수는 등급 결정에 아주 큰 영향을 준다. 국어 수행평가의 항목은 독서, 프레젠테이션 발표, 조별 프로젝트 연구 등 교사의 역량에 따라 다양하게 구성될 수 있는데, 교사가 제시하는 수행평가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성장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교육과정에서 다루는 단순한 내용만을 대상으로 과제를 하는 것보다는 심화, 확장된 내용을 보고서 작성에 활용하거나 발표하는 것이 좋다. 단순히 인터넷 검색을 통해 찾을 수 있는 정보로 발표나 보고서를 구성할 경우 절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다. 어렵겠지만 논문을 검색해 보거나 깊이 있는 내용을 다룬 도서를 읽고 소화해보려고 노력하는 과정이 있어야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다. 이런 과정은 생기부의 ‘과목별 세부 특기 사항’에 기재되므로 수시 입시와도 직결된다고 할 수 있다.

다. 중3 때부터 준비하는 단계별 수능 국어 대비 전략

수능 국어는 ‘독서’, ‘문학’의 공통과목과 ‘화법과 작문’, ‘언어와 매체’의 선택과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각 영역에서 기본 개념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기출 문제를 전략적으로 분석하여 주요 출제 요소와 빈출 문제 유형에 익숙해지는 과정이 필요하다. 현 중3들이 수능 국어를 위해 갖추어야 할 능력은 첫째도 둘째도 ‘독해력과 사고력’이다. 기본 개념의 확립, 기출문제 분석, 문제 풀이와 같이 고등학생들에게 강조하는 수능 국어의 공부법과 능력 모두는, 사실 독해력과 사고력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허상일 뿐이다. 아무리 문제를 풀어도 등급이 오르지 않는 억울한 공부를 하지 않으려면, 지금 많이 읽고 많이 생각하는 훈련을 해야한다.



1) 문학, 비문학을 막론하고 많은 글을 읽자.

많은 학생들이 ‘어릴 때 책을 많이 안 읽었으면 국어를 잘하기 힘들까요?’라고 질문한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이다. 글을 읽는 행위 자체가 수능 국어 시험을 위해 필요한 필수적인 행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글 읽는 것이 습관화 된 학생들이 좀 더 유리한 출발선에 놓인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어릴 때 책을 읽지 않은 것만을 탓하고 있을 것인가? 중3 시기는 독해력을 기르기에 충분하고도 필수적인 시기이다. 소설이나 인문학 서적 등 자신이 좋아하는 분야의 책을 가까이 두고 읽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을 추천한다. 고2 이후가 되면 ‘문제 풀이의 압박’으로 인해 독해력의 기초를 다지는 것이 힘들어진다. 독해력 없이 문제 풀이에만 몰두한다면, 아무리 문제를 풀어도 등급이 오르지 않는 슬픈 레이스에 발을 딛는 것이나 다름 없기 때문에 지금부터 독해력의 기초를 다져두도록 하자.

2) 기본 개념 확립

독해력을 기반으로 하여 수능 국어 문제를 풀어내기 위해서는 ‘기본 개념’이라는 것이 갖추어져 있어야 한다. 국어는 개념을 외워 그대로 적용하는 교과가 아니라 기초 개념들이 문제를 푸는 출발점이 되어주므로, 개념이 없이 문제 풀이에 접근한다면 아무리 열심히 해도 늘 제자리인 공부라 될 수밖에 없다. 출제자들은 학생들이 국어영역에서 쓰이는 주요 개념들을 제대로 알고 있는지, 더 나아가 이에 해당하는 요소를 지문에서 정확하게 찾아 이해하는지를 평가하려고 한다. 그래서 핵심 개념 또는 비교적 익숙하지 않은 개념을 제시하거나, 지문의 흐름 및 내용 파악을 어렵게 하여 선지의 개념에 해당하는 요소를 쉽게 찾을 수 없도록 문항을 출제한다. 예비 고1이라면 수능 기본 개념을 정립하기에 좋은 올림포스 시리즈와 나비호과 입문편을 추천한다. 이 시리즈의 강의와 교재들은 수능 대비를 위한 국어 전 영역의 필수 개념들을 모두 정리한 것이므로, 출제자가 주로 활용하는 개념이 어떤 것인지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된다.

라. 영역별 수능 국어 학습전략

공통과목인 ‘독서’, ‘문학’은 본격적으로 고1 때부터 내신과 수능 대비 공부를 병행해야 한다. 그리고 1학년 때 내신을 공부하며 ‘언어와 매체’와 ‘화법과 작문’의 선택과목 중 자신과 잘 맞는 과목을 선택하면 된다. 언어와 매체의 경우 시간 투자를 많이 해야 하지만, 개념만 잘 확립해두면 문제를 정확히 풀 수 있다는 점, 등급컷이 상대적으로 낮게 설정된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화법과 작문은 특별한 시간 투자 없이 독해력과 전략으로 문제를 풀어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등급컷이 높게 설정된다는 단점이 있다. 때문에 상위권 학생들의 경우는 언어와 매체 선택자가 상대적으로 많다.

과목	학습전략
문학	문학 용어 이해 및 개념 정립, 중3부터 다양한 문학 작품을 공부해 둘 것 고1 입학 후에는 특히 고전문학 작품을 다양하게 접해 볼 것
독서	글을 읽고 이해하는 독해력과 글의 맥락을 이해하는 사고력 필수 독서 공부의 대상은 쉽게 읽히는 것보다, 어려운 지문이 좋음
언어와 매체	개념을 이해하고 외우는 것 70%와 문제로 적용하는 연습 30% 필요
화법과 작문	독해력과 시간을 단축하는 전략적 풀이 능력 필요
공통	독해력과 사고력, 지문에서 출제 요소와 근거를 찾아내는 눈 필요

마. 고1의 첫 시험, 3월 학력평가 대비법

내신 시험과 달리 수능 시험은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고, 기본 교과 지식을 바탕으로 종합적 사고력을 요하는 고난도 시험이다. 학력평가는 이러한 수능을 '모의'로 체험해 보는 시험으로, 전국에서 자신의 위치를 객관적으로 가늠할 수 있는 잣대가 되는 시험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학력평가는 수능과 유사한 유형의 시험이기 때문에, 시간 안에 제시된 문제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선지의 적절성을 정확하게 판단하는 훈련이 되어있어야 고득점을 받을 수 있다. 모의시험이기 때문에 학력평가 점수는 대학 입시에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 수능과 유사한 시험이기 때문에 학력평가를 진지하고 성실하게 응시하면서 수능 시험에 대한 적응력을 높여 나가야 한다. 3월 학력평가는 중학교 전 범위에서 문항이 출제되고 6월 학력평가부터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기반으로 문항이 출제되기 때문에, 중학교 국어에서 배웠던 개념들을 다시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고1 학평 기출문제를 통해 출제 유형에 적응해야 한다. 기출문제를 풀 때는 발문을 통해 출제자의 출제 의도를 이해하고, 출제자가 제시한 문제 상황을 분석하는 데 주력하도록 하자.

4.2 수학

수학 공부의 가장 큰 틀은 개념을 이해하고 이를 적용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여기서 말하는 '개념'이란 수학적 내용을 의미하며 관련된 공식과 성질, 이것이 나오게 된 흐름과 증명과정 등 전부를 뜻한다. 내용이 이해가 되면 이것이 적용된 문제를 풀면서 필요한 개념을 적용하는데, 문제 풀이가 생각처럼 배운 개념을 단순히 집어넣기만 해서 해결되지는 않는다. 복합적인 개념이 사용되고 응용된 다양한 유형의 문제를 학습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 수학 공부의 양대 산맥, 개념과 문제 풀이

1) 개념학습법

흔히들 개념학습이라고 '공식만 외우면 된다'고 오해하는데, 수학은 암기가 절대 아니다.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개념이나 공식은 없다. 흐름을 이해하고 이런 공식이 왜 나오게 되었는지 그 인과관계가 분명히 있다. 이것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증명과정도 필요하고 관련된 개념의 복습도 함께 필요하다.

첫 번째 개념정리는 처음 그 내용을 배우면서 '내 손으로 노트 정리'하는 것이다. 교과서 또는 교재에 형광펜 표시하는 것부터 수업들으며 알게 된 내용의 필기 모두를 의미한다. 그리고 수업이 끝나면 쓴 내용을 바탕으로 5분만 복습을 하자. 짧지만 강력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두 번째로는 전체 흐름을 볼 수 있는 '한판으로 정리하기'를 한다. 한 단원이 끝날 때마다 이렇게 정리하는 것이 좋는데 그 단원의 내용의 흐름이 보이기 때문에 나중에 키워드만 들어도 내용이 전체적으로 쪽 떠오를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이와 관련된 이전 내용들도 같이 정리해둔다면 따로 지난 과정을 복습하지 않아도 돼서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이 두 가지만 꾸준히 지킨다면 처음 배울 때도 정리하면서 도움을 받을 수 있고 문제를 풀면서도 그때



그때 찾아볼 수 있다. 개념학습은 시간이 들어도 할 때 천천히 제대로 학습을 하는 것이 좋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 내용이 가물가물해지면 지금 정리한 내용을 찾아보기만 하면 됨을 잊지 말자.

2) 문제학습법

문제 풀이는 그저 많이 풀기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적은 양의 문제를 풀더라도 제대로 풀이 해야 한다. 우선 하루 풀어야 할 양을 정하자. 그리고 그 양이 끝날 때까지는 절대 답지나 풀이 해설의 도움을 받지 않는다. 모르는 문제가 나온다면 일단 패스하고 끝까지 풀고 난 뒤 다시 돌아와 고민해보자. 이렇게 두 번의 과정이 끝나면 그때 채점을 하고 틀린 문제를 정리한다.

꼭 생각해야 할 점은 이미 정답을 맞힌 문제는 내 것이 된 것이므로, 우리에게 소중한 것은 틀린 문제라는 것이다. 틀린 문제들은 꼭 해설강의를 보거나 해설지의 도움을 받아 제대로 알고 가야 한다. 특히 문제 풀이 강의에 있는 경우면, 이렇게 풀이를 모두 마친 후 전체적으로 강의를 듣는 것을 추천한다. 선생님의 풀이와 내 풀이가 어떻게 다른지, 처음에 어떻게 문제를 해석하고 접근하는지를 비교해보면서 그 팁을 얻어가자.

나. 수학 교육과정 제대로 알기

고교과정에서 수학은 현재 ‘선택’이 가능한 부분이 있다. 학교에서 완벽하게 선택한 대로 수업을 들을 수는 없더라도 최대한 선택에 맞게 수업을 구성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본인이 희망하는 진로를 잘 생각하면서 관련된 수학 과목을 선택하는 것이 대학입시에 유리해지므로, 희망학과에서 요구하는 교과목을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좋다. 또한, 수능과목으로 선택하는 과목을 학교 수업에서도 들을 수 있도록 해야 내신과 수능을 준비하는 데 시간을 낭비하지 않을 수 있다.

수학 교과목은 공통과목, 일반선택과목, 진로선택과목 세 가지로 나누어볼 수 있고, 1학년 때에는 공통과목으로 <수학>을 배우게 되고, 2학년부턴 선택을 할 수 있는데 일반선택과목, 진로선택과목 중에 학생이 정할 수 있다.

공통과목	일반선택	진로선택(일반고 기준)
수학	수학I, 수학II, 미적분, 확률과 통계	실용 수학, 경제 수학, 기하, 수학 과제 탐구, 인공지능 수학 등

6과목(수학, 수학I, 수학II, 미적분, 확률과 통계, 기하)의 학습 내용에 대해 간략하게 소개하겠다.

과목	단원명	교과 특성
수학	다항식	공통과목으로 대부분의 학교에서 1학년 1,2학기 동안 배우게 되는 과목이다. 수능에 직접 출제되는 과목은 아니지만 다음 과목을 배우는데 있어 꼭 필요한 기본 베이스가 되며, 다른 단원과 유기적인 관계에 있어 간접출제범위로 생각하면 된다. 수능까지 길게 보려면 내용의 심화 문제 풀이보다는 정확한 개념의 이해를 중요하게 보자.
	방정식과 부등식	
	도형의 방정식	
	집합과 명제	
	함수의 그래프	
	경우의 수	

과목	단원명	교과 특성
수학Ⅰ	지수함수와 로그함수	일반선택과목이나, 수능에서는 필수과목이라서 대부분의 학교에서 2학년 1학기 교육과정으로 편성한다. 다양한 함수의 그래프를 다루게 되며 2015 개정에서 다시 들어오게 된 ‘삼각함수’에서 많은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는다.
	삼각함수	
	수열	
수학Ⅱ	함수의 극한과 연속	수학과 마찬가지로 일반선택과목이나, 수능에서 필수과목이라서 대부분의 학교에서 2학년 1학기/2학년 2학기 과정으로 편성한다. 다항함수의 그래프와 변화율, 넓이에 대해 다루게 되며 특히 미분의 활용 부분은 고난도 문제 내용으로 빈출 되는 부분이다.
	미분	
	적분	
미적분	수열의 극한	대수능의 선택과목 중 하나이다. 많은 학교에서 3학년 1학기 과정으로 편성할 것이고, 흔히 이과계열로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들이 많이 선택한다. 다양한 함수의 그래프를 다루기 때문에 수Ⅱ에서 심화되는 내용이 많고 이에 따라 고난도 문항이 많이 출제되어 부담스러워하는 학생이 많다.
	미분법	
	적분법	
확률과 통계	경우의 수	대수능의 선택과목 중 하나이다. 많은 학교에서 2학년 2학기 또는 3학년 1학기 과정으로 편성할 것이고, 다른 선택과목에 비해 공부의 부담이 적은 편이다. 따라서 인문계열로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을 비롯해 수학에 어려움을 느끼는 학생들이 주로 선택하는 과목이다.
	확률	
	통계	
기하	이차곡선	대수능의 선택과목 중 하나이다. 이공계열로 진학하고자 하는 학생 중 일부가 선택을 하고 과목 특성상 그래프와 기하적인 이해가 필요하며, 3차원 입체 공간을 사고하는 것에 대해 학생들의 학업 능력 편차가 큰 편이다. 도형에 대한 감각이 필요한 과목이다.
	평면벡터	
	공간도형과 공간좌표	

다. 미리 생각해보는 수능

고등학교 수학하면 가장 걱정이 되는 부분이 ‘수능’일 것이다. 처음이고 새로우면서도 가장 많이 들어봐서 겁을 내곤 한다. 미리 한 번 생각해 두면 3년의 학습에서 나아갈 방향을 결정할 수 있다. 특히 고2, 고3에 와서 선택과목을 바꾸는 것이 쉽지 않으므로 선택과목의 유불리와 자신이 지원하고자 하는 진로에 맞게 선택하도록 하자. 먼저 수능 수학 과목은 3과목으로 공통으로 보는 수Ⅰ, 수Ⅱ와 선택과목 한 과목으로 구성이 된다.

공통과목	선택과목
수Ⅰ, 수Ⅱ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중 한 과목 선택
간접출제범위 : 고1 수학	

2023학년도 수능을 앞둔 고3의 경우 작년과 다르게 ‘미적분’ 과목 선택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물론 여전히 확률과 통계의 선택 비율이 가장 높지만, 작년에 비해 미적분 선택자가 늘어난 것에 대해 미리 생각해봐야 한다. 6월 모의평가에서 선택한 비율은 다음과 같다.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
51.5%	42.8%	5.7%

미적분 선택자가 늘어난 이유는 표준점수에서 유리한 점 때문이다. 6월 모의평가 표준점수의 경우, '미적분'은 146점으로 '기하' 143점, '확률과 통계' 142점과 비교해 높았으며 최대 4점 차를 보였다. 또한, 상위권에서 미적분 쏠림현상이 있어 6월 모평에서 1등급 획득 학생 중 92.9%가 미적분을 선택했다. 그리고 미적분 과목은 공통선택과목인 수Ⅱ의 심화 내용을 배우다 보니 공통문제를 푸는 데 유리함이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선택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이공계열로 진학을 원하는 학생들의 경우 대체로 미적분과 기하 중에서 선택을 하기 때문에 위의 내용을 참고하면 된다. 하지만 문과계열로 진학할 학생들은 주의할 사항이 있다. 확률과 통계와는 다르게 상대적으로 미적분은 학습량이 많고 내용이 어렵다. 즉, 미적분이 무조건 유리하다고 생각해서는 안된다. 이러한 점을 잘 고려하여 선택과목을 정하도록 하자.

라. 고등학교 입학 전 학습법

수학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는 고3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다. “고1 때 수학 좀 잘해둘 걸...” 고등학교 수학의 핵심 키는 고1 수학이 쥐고 있다. 그 핵심이 바로 지금이다. 예비 고1에게 겨울방학 전 두 달, 11월, 12월은 겨울방학과 더불어 가장 중요한 시기이다. 이때, 더 빠르게 시작한다면 고등학교 3년간 하게 될 걱정을 날릴 수 있다.

1) 중학교 내용 총정리

3년 치를 전부 다 공부하라는 것은 절대 아니다. 중학교 3년간의 학습 내용 목차를 보면서 단원명을 보고 내용이 떠오르지 않거나 용어가 생소한 단원만 위주로 확인한다. (중2와 중3의 내용은 본격적으로 고등수학과 연결되니 자신이 없다면 다 보는 것도 좋다.) 공부 할 단원이 확인되었다면 이제 개념만을 위주로 꼼꼼히 보자. 이때를 위해 교과서나 개념서 중에서 중2, 중3 교재는 1권씩 남겨두는 것이 좋다. 개념을 위주로 정리하며 특히 공식 부분은 ‘중학 개념 노트’로 작성해두어야 한다. 이렇게 복습한 내용과 노트가 있다면 고등학교 3년간 중학 수학이 헛갈릴 때 꺼내볼 수 있다. 중학 수학을 복습해야 하는 이유는 또 있다. 바로 고등학교에 들어가서 보게 되는 첫 모의고사, 3월 학력평가가 있다. 이 모의고사의 범위가 중2, 3학년의 부분이므로 이를 대비하면서 겨울방학에 꼭 전체적인 복습을 해두어야 한다.

2) 고등수학 1학기 내용 예습

선행은 필수가 아니지만, 고1 수학의 1학기 내용을 미리 공부하는 것은 필수이다. 그래야 3월에 학교 수업을 들어도 이해가 쉽고 자신감이 붙는다. 중학 수학을 잘했던 경우면 중학 수학 복습은 간략히만 하고 바로 고1 1학기 내용 예습을 시작해도 좋다. 이런 경우는 고등 과정을 공부하면서 취약 부분만 찾아 중학 내용을 메꿔도 충분하다. 고1 수학을 공부할 때는 제대로 개념을 이해하고 기본 유형 문제 풀이까지 완벽하게 하면서 가야한다. 1학기 내용을 전부 끝내지 못해도 좋다. 중요한 것은 처음부터 제대로 공부하는 습관을 잡는 것이다. 이렇게 예습을 시작하면 학기가 시작하고도 공부 과정을 연결하면서 예습할 수 있으니 2월까지 전 과정을 끝내야 한다는 압박을 느끼지는 않아도 괜찮다.

마. 수준별 수학 공부법

1) 상위권 수준의 학생

“선행학습 진도에 얽매이지 말자! 깊이 있는 개념공부와 고난도 문제 고민하기”

고1 입학 전에 진도를 어디까지 나갔는가가 수준을 나누는 척도로 얘기하는데 상당히 잘못된 것이다. 최상위권이라도 최대 선행 진도는 수학1 전 까지면 충분하다. 고1 수학에 집중할 수 있는 때는 예비 고1의 준비 시기뿐이고 막상 고1이 되면 현행 진도를 나가면서 또 수1, 수2의 선행을 나가기 바빠질 것이다. 많은 진도를 나가는 것은 그저 모래성 쌓기가 될 수 있음을 생각하고 할 때 제대로 하는 것이 중요하다.

최상위권은 킬러문항(2~3문항)에서 승부가 나는데, 암산으로 답을 찾거나 남들보다 문제를 빨리 푸는 것에 자만하지 않아야 한다. 머릿속으로만 문제를 푸는 것은 고등학교에서는 유효하지 않다. 이런 성향의 학생들이 오히려 계산 실수가 잦으며 문제 풀이과정을 설명할 수 없어 서술형 답안을 작성하는 것에 어려움을 겪는다. 또한 고난도 문항 풀이는 풀이 과정이 길고 논리적으로 진행이 되어야하므로 이런 연습을 지금부터 하도록 하자.

일반적인 문제풀이와 고난도 문제 풀이 비율을 맞춰가면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고난도 문항에 집중해 보자. 이럴 때 오답노트를 활용하는 것도 좋다. 매일 오답노트 속 문제 풀이 시간을 정하고 이 문제의 경우 여러 방법으로 고민해서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노력해보자. 그 후 해설의 풀이와 비교하면 어느 부분을 생각하지 못했는지가 바로 보이게 되어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다. 특히 교육청, 평가원 기출문항 중 최고난도 문항들은 해설강의를 통해 조건을 해석하고 문제에 접근하는 다양한 방법을 익혀두도록 하자.

2) 중위권 수준의 학생

“잘하는 부분 말고 부족한 개념 채워두기 & 꾸준히 수학 문제 풀기”

일반적으로 마음먹고 수학공부를 하려고 하면 책의 제일 앞부분부터 시작한다. 그래서 앞쪽 단원은 잘하고 뒤로 갈수록 어려워진다. 지금부터 복습을 하면서 이미 알고 있는 부분이라면 넘어가고 자신 없는 부분부터 시작하자. 부족한 개념을 채워두어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히 학습할 습관’을 만드는 것이다. 중위권의 경우, 공부를 하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학원의 숙제 정도만 겨우 하거나 학교에서 수업만 들을 뿐 스스로 공부하는 습관이 들지 않은 학생이 많다. 능동적으로 학습하지 않으면 책상 앞에는 앉아 있어도 머리에 들어오는 것이 없을 수 있다. 오늘부터 일주일의 수학 공부 계획을 세우고 주 5회 이상 꾸준히 수학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하자. 하루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것보다 할 수 있는 양을 꾸준히 하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 가끔 수학 feel이 오면 열심히 달리고 그렇지 않은 날은 수학을 하지 않으면서 “왜 열심히 해도 오르지 않지?”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한 번만 열심히 하고 꾸준히 하지 않는다면 감을 잃을 수밖에 없다.

중위권 학생의 대부분이 개념정리가 되어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 스스로는 개념은 알고 있는데 ‘응용문제에 적용하는 것이 서툴다’거나 ‘고난도 문항에 대한 연습이 부족하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다. 절대적인 공부량 자체가 적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교과서와 개념서, 유형별 문제집을 반복 학습하여 단위별 대표 유형들만 해결할 수 있더라도 극적인 성적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 2개월은 중학교 3학년 과정의 복습에 투자하고, 1개월은 고등학교 1학년 ‘수학’ 과목의 1회 독, 혹은 앞 3단원(1학기 과정)의 2회 독을 목표로 공부한다면 긍정적인 변화가 생길 것이다.



3) 하위권 수준의 학생

“중학교 수학부터 다시 한다면 반드시 역전 찬스는 온다.”

스스로를 수포자라고 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책상 앞에 앉아 있는 시간 자체가 적고 책상 앞에서도 핸드폰, 컴퓨터 등으로 허비하는 시간이 많은 학생이 대부분일 것이다. 또한, 중학교 내용에서 빈 곳이 많기 때문에 마음 먹고 수학 공부를 하려고 해도 지금 당장 고등학교 수학을 이해할 수도 없어 또다시 포기하게 된다.

우선 자신의 하루, 일주일을 되돌아보며 생활패턴을 반성할 필요가 있다. 허비하는 시간들을 확인하자. 학교 끝나고 4시 이후 내 공부시간을 확보하자. 습관을 조금씩 고쳐가기 위해 처음에는 무리하지 말고 ‘30분씩 수학 인터넷 강의 듣기’와 같이 실현 가능한 계획부터 이루어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조금씩 공부량을 늘려가며 중학교 수학의 복습에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 인터넷 강의를 활용하여 필요하다면 중학교 2학년, 3학년 내용을 정리하고, 복습이 끝나면 고등학교 1학년 ‘수학’ 과목의 앞 1단원만 한 번 훑어보는 것을 목표로 공부한다. (학교에 들어가서 처음 만나는 부분을 알고 있어야 자신감이 생긴다.)

책상에 앉아 집중하는 자세만 가지고 고등학교에 진학하더라도 절반의 성공! 꾸준히 공부해나가면 3개월 안에 생각보다 큰 변화를 볼 수 있을테니 일주일 노력하고 안된다고 하지 말고 꼭 3개월은 유지해보자. 수포자 금세 탈출할 수 있다.

4.3 영어

예비 고1, 고등학교 영어 어떻게 대비하고 시작하면 될까? 고등학생이라고 해서 특별히 영어공부 내용이나 방법 자체가 크게 바뀌는 것은 아니다. 다만, 양이 방대해지고 요구하는 생각의 깊이가 더 깊어질 뿐이다. 분명한 것은 이전보다 공부하는 시간과 공을 더 많이 들여야 한다는 것이다. 크게 느껴지는 변화도 결국 조금만 더 관찰해보면 그 본질은 결국 같다. 즉, 방식은 비슷하게 하되 시간과 끈기를 더 많이 투자한다고 생각하면 된다. 영어 공부법을 단어, 문법, 독해로 나눠 들여다보자.

가. 영어 단어

시작하는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단어이다. 일단 단어가 자신이 없으면 무엇이든 읽을 엄두가 나지 않는다. 고등학교 단어는 중학교보다 양이 많은데, 흔히 2,500여개의 단어를 알면 고교 수능 수준의 독해가 쉬워진다고 한다. 단어를 하루 20~30개씩 꾸준히 정리한다면 분명히 독해가 쉬워지는 순간이 올 것이다. 만약 단어 정리를 하다가 지루해서 한 달을 쉬게 되었다면, 그 후 다시 시작할 때는 이전에 한 부분 뒤부터 시작해야 한다. 계속 맨 앞부터 시작하면 결국 끝맺음을 하지 못하고 아예 좌절하여 손을 놓게 된다. 중요한 것은 완벽한 공부보다, 완벽하지 않은 상태라도 참고 이어가는 단순한 꾸준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1) 단순하게 외워라

단어공부를 시작할 때 ‘어떻게 해야한다’는 생각을 많이 할 필요는 없다. 어원도 예문도 좋지만, 일단은 단어와 그 단어의 대표적인 뜻을 연결하여 기억하는 것이 우선이고 그것이 단어공부다.

2) 자주, 짧게 보라

단어를 공부한답시고 한 번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심도있게 하겠다는 자세는 금물. 화장실에 가며 한 번, 쉬는 시간에 한 번, 버스를 기다리며 또 한 번, 이렇게 계속 반복하여 짧은 자극을 주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그러려면 단어장이 항상 내 몸에 있어야 하는데 교복 주머니나 휴대폰 메모장 등 항상 손에 닿는 곳에 단어를 놓아두고 심심한 순간에 항상 단어를 접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아니면 학습공간에 포스트잇으로 붙여두는 것도 방법이다.

나. 문법(문장 독해)

단어가 어느 정도 되고 있다면 다음은 문법이다. 문법 지식은 영어를 정확히 읽게 해주는 도구로, 문장의 구조를 알게 하는 지식이다. 흔히 문장을 접하면, 어디까지가 주어인지 서술부가 어디서 시작되는지, 어디까지가 부사절인지 이런 것을 알아보는 것과 관련 있다. 고등학생 때 배우는 문법은 중학교 3년 동안 내신 시험을 통해 배웠던 지식범주를 벗어나지 않는다. 다만 그 재료가 되는 문장과 단어가 어려워질 뿐이다.

1) 문법은 전체 그림을 보아야 한다

문법은 크게 문장의 구조를 기본 지식으로 하여 동사부, 준동사부, 태와 법, 절로 나누어진다. 이러한 다섯 개의 파트가 정리되어 서로 연결될 때, 활용 가능한 지식이 된다. 이렇게 문법은 전체를 한 덩어리로 엮어내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문법 지식이 내 머릿속에 있어도 잘 활용이 되지 않는다.

2) 사전을 자주 활용하자

문법은 일단 각 표현들이 어떤 품사인지 그 표현은 어떠한 구조로 다른 표현들과 함께 쓰이는지에 대한 법칙이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모든 지식과 법칙은 모두 사전 속에 들어있다. 사전이야말로 가장 정확한 문법책이자 의미책인 셈이다. 문법 공부 중 의문이 든다면 무조건 영어사전을 참고해보자. 영어사전을 항상 준비해놓고 언제나 펴보는 습관을 기른다면, 문법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고교 영어에 대해 순식간에 정복이 가능할 것이다.

다. 독해(문단 독해) - 수능 영어

문단 독해는 수능 영어와 직결된다. 단어가 쌓이고 문법 지식이 생겨, 문장 독해가 가능해지면 그 문장들이 합쳐져 하나의 문단이 된 채로 읽을 준비가 된다. 수능 영어 문단의 소재는 사회, 과학, 예술, 환경, 심리 등과 같은 학문영역에서부터 각종 안내문과 실용문에 이르기까지 정말로 다양하다. 안내문과 실용문은 듣기와 더불어 어느 정도 정복이 가능하지만 학문영역 소재들은 출제자가 마음 먹고 어렵게 문제를 내면 그 난도가 끝이 없다. 이러한 지문은 한글로 번역된 글도 이해하기가 버거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독해력 자체를 기르려고 노력해야 한다. 즉, 상식과 배경지식을 늘리고 어려워 보이는 글이라도 신문, 잡지, 논문을 비롯하여, 국어영역의 비문학 제재 등 어떤 분야이든 배척하지 말고 읽어보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뜻이다. 결국 국어 능력이 수능 영어에도 중요한 영향력을 끼친다는 셈이다.



1) 독해지문을 읽을 때, 한글 해석에 의존하지 말자

지문의 내용 대신, 현재 내가 독해가 되고 있는지에 집중하라는 것이다. 영어는 영어지문 속에서 어떻게든 답을 내야 하는데, 한글 해석을 확인하며 안도를 얻으면 영어 독해력이 늘지 않는다. 아직 공부가 되지 않았는데 스스로 안다고 착각을 하게 되어 더 이상 깊은 공부를 하지 않기 때문이다. 한때 수능이 직접 연계가 되던 시절에는 한글 해석만을 읽어 그 내용을 익숙하게 하거나, 지문 내용을 한글로 정리하는 식의 공부가 많았다. 이런 스타일의 공부는 독해력이 늘지 않는다. 내신 시험을 위해 공부를 할 때도 한글 해석이나 내용 요약본에 의존하는 학생들이 있는데, 고등학생이 되면 빠르게 없애야 하는 습관 중 하나다. 고등학교는 내신 시험도 내용을 암기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영어지문을 활용하여 독해하는 힘을 보는 문제들이 나오기 때문이다. 영어지문 해석을 외우기만 한다면 등급을 얻기가 쉽지 않다는 것과 내신도 수능도 모두 영어 능력을 측정하는 시험임을 꼭 기억하자.

2) 각 문장의 기능을 따지는 습관을 들이자

문단은 문장이 모여 있는 것으로 일단의 의미 덩어리를 만들어 낸 것이다. 그때 각 문장은 도입, 전개, 예시, 주장, 반론, 결론 등의 기능을 한다. 그 기능이 무엇인지 묻는 스타일의 문제는 나오지 않지만, 그 기능이 무엇인가 생각하며 읽는 습관은 글의 흐름을 알게 한다. 내용이 무엇인지 해석하면서 글의 흐름을 읽는 연습을 해야 한다. 고등학교의 영어지문은 문장 기능을 읽고 어디서 강해지고 어디서 약해지는지, 어디서 반전이 있는지, 그러한 흐름을 잡고 있는가를 묻는 문제가 출제되기 때문이다. 많은 지문을 보는 것보다 한 지문을 제대로 소화하고 분명히 느껴보는 경험들이 필요하다.

4.4 한국사

고등학교에 진학하면 보통 1학년 때 한국사를 공부하게 된다. 간혹 몇몇 학교는 입시를 고려해서 2학년 때 한국사를 배우는 학교도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1학년 때부터 배우게 된다. 많은 학생들이 고등학교에 진학할 때 중학교에서 배운 한국사 내용을 다 잊어버리기 때문에 새로운 마음으로 한국사를 처음부터 배우게 되는데 그때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가. 중학교 한국사 내용 복습

모든 고등학교에서 내신 한국사는 필수과목이다. 배우는 학년은 다를 수 있지만, 고등학교에서는 무조건 일주일에 3시간 이상은 배워야만 한다. 고등학교 때 배우는 한국사의 기본적인 내용을 초등학교와 중학교 때 다 배우고 올라오기 때문에 중학교 3학년 겨울방학 때 적어도 중학교 한국사 내용은 한 번 복습하고 고등학교에 진학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고등학교 한국사 내용은 분량도 많은 편이며, 비교적 시험 난도가 높기 때문에 내신 시험에 대비하기 쉽지 않다.

나. 고등학교 한국사 공부 방법

1) 학교 내신 문제 유형을 파악하라

고등학교 내신 시험은 수능 문제와 비슷하게 출제하려고 하기 때문에 중학교 때의 문제와는 문제 유형에서 많은 차이가 있다. 미리 대비하지 못한 친구들은 절대로 자신의 실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따라서 반드시 선배들이 풀었던 시험 기출문제를 꼭 풀어보아야 한다. 학교마다 내신 기출문제를 공개하기 때문에 미리 풀어보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2) 학교 수업을 잘 들어라

학교 내신 시험은 수능과 달리 가르쳐 주시는 학교 선생님이 직접 출제를 한다. 한국사 교과서에서 어떤 부분이 출제되는가는 교과 선생님의 재량이다.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이 평소에 어느 부분을 자세히 설명했는지, 어느 부분을 강조했는지, 반드시 체크해두고 기억해야만 한다. 중요한 부분만 공부하면 일정 점수 이상은 나올 수 있지만 고득점을 받기는 어려울 수 있다. 내신 한국사 성적은 상대평가로 산출한다. 상대평가는 학업 성취를 다른 학생과 비교하여 등급을 산출하는 것으로 보통 상위 4%까지는 1등급, 11%까지는 2등급, 23%까지는 3등급을 받게 된다. 변별력을 위해 선생님들은 고난도 문제를 출제할 수밖에 없다. 이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평소 수업을 잘 듣고 선생님의 출제 유형을 파악해야만 한다.

3) 자료에 집중하라

고등학교 시험에서는 자료가 많이 나오는 편이다. 적어도 학교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제시해 준 자료는 반드시 확인하시고 자료에서 출제 포인트와 핵심 키워드를 잘 찾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교과서에 나와 있는 사료, 사진, 지도 등은 굉장히 중요한 출제 포인트이다.

4) 시험 범위를 잘 기억하라

의외로 시험 범위를 잘 못 알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 한국사에서 세계사 부분이 출제가 되는지, 본문 내용 외에 '더 알아보기'라던가 '심화학습'과 같은 부분도 시험 범위 안에 포함이 되는지 잘 알아두어야 한다. 시험 범위에 포함되어 출제될 수 있다면 반드시 체크하고 꼼꼼히 살펴보아야만 한다. 시험범위 안에 있는 내용은 수업 시간에 다루지 않았어도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5) 교과서는 진리다

학교 시험에 있어서 교과서는 진리이다. 선생님이 보통 문제를 출제할 때 교과서에 있는 용어를 사용한 다. 문항을 제작할 때 교과서에 있는 문장을 그대로 옮기는 경우가 많고 오답을 만들 때에도 약간 변형시키는 정도이기 때문에 교과서는 철저하게 분석해야 한다. 또한, 여러 선생님들이 공동 출제를 하기 때문에 각 반별로 내용 편차를 줄이기 위해 교과서에 충실하게 수업을 하고 출제를 할 수밖에 없음을 기억하자.

6) 서술형 문제의 조건을 잘 파악하라

학교 시험은 서술형 문제가 있다. 보통 서술형 문제는 출제자 입장에서 채점하기가 까다롭기 때문에 문항에 평가를 하기 위한 많은 기준들이 제시되기 마련이다. 그 기준들은 반드시 지켜야만 한다. 예를 들어, 서술형 문항의 조건으로 정답을 세 가지만 쓰라고 하면 가장 확실한 것부터 세 가지를 서술하고 글자 수 제한이 있으면 꼭 지켜야 한다. 기준들을 잘 지키기만 해도 서술형은 크게 어렵지 않게 쓸 수 있을 것이다.



7) 시험 보기 전에 문제를 많이 풀어라

보통 한국사와 같은 사회 과목을 공부할 때, 많은 친구들이 교과서를 한 번 쓱 훑어만 보고 시험을 보는 경우가 많다. 이러면 절대 시험을 잘 볼 수가 없다. 시험을 보기 전에 적어도 시험 범위 안에서 300문제 이상을 풀고 시험을 봐야 한다. 시중에 있는 문제집의 대다수가 현직 교사들이 직접 제작한 문제들이기 때문에 비슷한 유형의 문제들이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 또한, 아는 것과 문제를 풀 수 있는 것은 별개이다. 개념을 알고 있다고 해도 문제에서 정답을 맞힐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때문에 반드시 많은 문제를 풀고 난 뒤, 틀린 것을 꼼꼼히 확인하고 시험을 보자. 그러면 분명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학교 내신 공부는 무조건 첫 번째로 학교 수업을 집중해서 잘 듣는 것이 중요하다. 이후에 교과서와 필기를 정독하고 문제를 많이 풀어보며, 틀린 문제들도 확인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수능 한국사는 쉽게 출제되기 때문에 내신 한국사 공부만 잘해두면 수능 한국사는 문제없이 대비할 수 있다.

4.5 통합사회

통합사회는 문·이과 모두가 배우게 되는 내신 필수과목이다. 통합사회의 경우, 중학교 수준 60%, 고등학교 수준 40%로 내용이 구성되어 있다. 하지만 학교에서도 결국 상대평가를 통해 등급을 부여하기 때문에 일부는 심화 내용으로, 킬러 문항이라고 하는 어려운 문제를 출제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통합사회의 내신 고득점을 위해서는 상당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통합사회는 지리, 역사, 윤리, 사회 과목이 통합되어 있으므로 내가 어떠한 탐구과목에 적성을 지니고 흥미가 있는지 판단이 가능하기 때문에 수능 때 선택하게 될 탐구과목을 정하는 데도 큰 도움을 받을 수 있다.

가. 공부 시작 전 확인할 것

각 과목의 학기별 평가계획은 사전에 공시하게 되어있다. 공시 방법은 학교마다 다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학교 홈페이지, 가정통신문 등을 활용하여 공시하므로 이를 꼭 확인하도록 하자. 평가계획에는 ‘해당 과목의 지필 평가는 몇 번 실시되는지’, ‘수행평가는 어떠한 내용들로 몇 번 실시되는지’, ‘지필 및 수행평가의 비중은 몇 퍼센트인지’ 등과 같이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좋다. 일반적으로 수행평가 시기가 과목별로 비슷한 경우가 많은데 사전에 각 과목별 평가계획을 체크하여 대비하면 특정 기간에 학습량이 쏠리는 것을 대비할 수 있다.

나. 지필평가 대비 학습법

통합사회 공부는 각 단원별 주요 개념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기본이다. 학교 수업이나 인터넷 강의를 통해 뼈대가 되는 핵심 개념을 파악하고 이를 중심으로 공부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자신만의 개념정리 노트를 만들어 요약 정리해 두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와 함께 고득점을 위해서는 문제 풀이가 반드시 병행되어야만 한다. 특성상 추상적인 개념을 배우다 보니 개념에 대한 이해가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해당 개

념이 문제화된 것에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추상적인 사회개념이 구체적인 문제에서는 어떻게 유형화되는지 반복 학습을 통해 연습하여야 한다. 가장 좋은 문제는 기출문제다. 통합사회 학력평가의 기출문항을 통해 해당 단원에서 어떠한 유형들이 주로 출제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좋다. 학력평가의 경우 선택형 문항만 있지만, 내신평가의 경우 서술형 문항도 출제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서술형 또한 대비해야 한다. 서술형 문항의 경우 용어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감점 요인이 된다. 특히, 맞춤법이 틀리는 경우 완전히 다른 개념이 되는 경우도 있기에 개념학습을 할 때는 정확하게 단어를 알아두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학교 교과서의 자료들을 활용하여 출제하기 때문에, 학교 교과서의 주요 자료들은 매우 꼼꼼히 정리해야 한다.

다. 통합사회 주제별 학습법

1) 일반사회

통합사회 영역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영역이다. 일반사회의 영역은 법, 정치, 경제, 사회문화로 세분화할 수 있다. 이 중 법과 정치, 경제 파트는 학생들의 부담이 큰 편이다.

- ① 정치와 법 : 실생활에서 사용하지 않던 용어들이 많기 때문에 체감 난도가 상당히 높은 편이다. 정치와 법에서 비중이 높은 <IV. 인권 보장과 헌법>의 경우는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하는 파트이다. 기본권의 내용, 기본권 보장을 위한 제도, 인권의 확장 과정, 청소년 노동권의 개념을 중심으로 반복 학습이 필요하며, 해당 개념에서 자주 출제되는 유형의 문제를 풀어보아야 한다.
- ② 경제 : 과목 성격상 한 번 제대로 이해해 두면 추가적인 공부 시간이 많이 들지는 않지만, 내용을 이해하는 과정이 만만치 않다. 경제는 일반사회 중에서 난도가 높은 과목 중 하나이며, <V. 시장 경제와 금융> 단원이 특히 난도가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
- ③ 사회문화 : 일반사회 영역 중 난도가 가장 낮은 편이다. 평이한 수준의 문항이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 사회문화 영역 중 비교적 난도가 높은 파트는 <VII. 문화와 다양성 단원> 중 ‘문화 변동의 양상과 원인’ 부분이다. 이 부분의 경우 도식화된 문제 출제에 대비하여야 하며 다양한 사례를 보고 문화 변동의 양상, 원인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2) 지리

지리의 경우 개념 자체가 어렵기보다는 지도를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많은 편이다. 시험에 출제되는 주제는 거의 정해져 있으므로 기출 문제 분석을 통해 출제 빈도가 높은 주제와 유형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II. 자연환경과 인간>, <III. 생활공간과 사회> 단원에서 지리 파트의 비중이 가장 높으며, <VII. 문화와 다양성> 단원 중 세계문화권의 구분 파트는 빈출되는 단원이다. 지도상 기후대의 구별 및 기후대별 생활양식의 특징은 기본적으로 위치의 파악이 중요하므로 세계의 문화권이 표시된 지도를 항상 곁에 두고 자주 보면서 눈에 익숙해지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III. 생활공간과 사회>의 경우는 산업화와 도시화에 따른 생활 변화 양상, 교통 통신과 정보화로 인한 생활양식의 변화를 잘 익혀두어야 한다.

3) 윤리

사상, 사상가에 대한 문제가 주로 출제된다. 사상을 이해하는 것이 기본이며 사상가들의 대표적인 말을 알아두는 것이 좋다. 대화나 제시문을 주고 해당 글이 어떤 사상가의 입장에 해당하는지, 또 이러한 사상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묻는 문제가 전형적으로 출제된다. <VI. 사회 정의와 불평등> 단원의 비중이 높으



며, 정의의 실질적 기준 중 분배의 기준과 관련된 문제가 까다롭게 출제되는 편이다. 각 분배 기준의 특징 및 한계까지도 꼼꼼하게 알아두어야 하는 부분이다. 그 외 <II. 자연환경과 인간> 단원 중 인간중심주의와 생태중심주의 및 유불도 사상 또한 자주 출제되므로 해당 사상들을 잘 정리해두어야 한다.

4) 역사

역사의 경우 한국사가 단독으로 필수 교과로 선정이 되어, 통합사회 내에서는 비중이 낮은 편이다. <I. 인간, 사회, 환경과 행복> 단원 중 통합적 관점을 이해할 때 역사적 관점에 해당하는 시각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IV. 인권 보장과 헌법> 중 인권의 확장 과정에서 시민 혁명(영국혁명, 미국독립혁명, 프랑스대혁명 등)은 반드시 정리하고 넘어가야 한다.

라. 수행평가 학습법

통합사회의 경우 지필평가의 주관식과 수행평가의 비중이 한 학기 전체 평가의 최소 45%가 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학교에서 실시하는 수행평가의 경우, 제시된 기준에 따라 성실하게 과제를 수행하였다면 만점을 받도록 설계되어있으므로 크게 겁먹을 필요는 없다. 다만, 학교 홈페이지나 가정통신문을 통해서 안내되는 수행평가의 내용과 평가 기준을 미리 꼼꼼하게 확인하여 특정 기간에 수행평가가 물리는 것에 대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수행평가의 방법 등은 출제되는 해당 일자에 알게 되지만 전체 계획표를 보고 해당 수행평가를 실시할 때 필요한 개념들을 미리 공부해두거나, 사전에 준비할 수 있는 부분들을 챙겨두면 부담이 훨씬 적다. 그 외 수행평가에서는 제출 기일이나 제출 방법, 반드시 서술하여야 하는 조건, 동료 평가 등에서 감점 요인이 많이 발생하므로 수행평가의 채점 기준, 감점 요인이 무엇인지를 숙지하고 유의하여야 한다.

4.6 통합과학

가. 통합과학 시작 전 준비법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의 진학은 단순한 학년 진급의 의미를 넘어 학교급의 변화이므로 학생들에게는 학습량의 증가와 대학 입시라는 문턱 앞에서 많은 심리적인 부담감을 주고 있다. 따라서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의 공통 과정인 '통합과학'의 학습법을 살펴보고 보다 안정적으로 고등학교 진학을 대비함으로써 심리적 거리감을 좁히고 성공적인 진학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먼저 통합과학을 시작하기 전에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을 살펴보고 가도록 하자.

1) 통합과학은 중학 과학에 비해 어려울까?

교육과정상 통합과학 교과목의 내용은 물리,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의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울 내용보다는 쉬운 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어렵다고 느끼는 것은 실제 학습하는 내용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 광범위하기 때문일 것이다. 정확하게 표현하면 통합과학은 물리, 화학, 생명과학, 지구과학을

모두 다루기 때문이다. 학습 영역이 광범위한 것은 어려운 것과 같다고 볼 수 없다.

과학은 나선형 교육과정으로 학년이 올라갈수록 같은 내용을 반복, 심화 학습하는 교육과정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통합과학 역시 중학교 교육과정과의 연계가 상당히 높은 편이다. 다만 중학교 때 학습하던 내용이 융합적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통합과학 학습법의 핵심은 기억하며 연결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 과학탐구를 선택하려면, 중학교 과정을 복습해야 할까?

나선형 교육과정의 틀 안에서 볼 때, 중학교 교육과정을 모두 이해하고 통합과학을 학습하거나 과학탐구를 선택한다면 학습이 매우 수월할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모든 내용을 전반적으로 복습하는 것에는 상당한 물리적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먼저 통합과학 학습 계획을 세워 진행해보고, 부족하다고 느끼는 부분들을 보충자료 또는 중학교 과정 복습을 통해 진도를 나갈 것을 추천한다. EBS에서는 과목별, 주제별, 교과서별 등 다양한 학습 개념이 정리된 영상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나. 고1 통합과학 내신 대비 학습법

통합과학은 단위 수가 통상적으로 높은 편이라 내신 관리 차원에서 등한시 할 수 없는 과목이다. 보통 4단위(1주일에 4시간의 수업)를 진행하며 이는 국어, 영어, 수학만큼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오랜 시간을 투자해야만 효과를 볼 수 있는 국어, 영어, 수학과는 다르게 통합과학은 출제 방향을 잘 맞추어 학습한다면 비교적 짧은 시간 동안의 학습으로 가성비 높은 효과를 낼 수 있다.

통합과학에 대한 학습은 두 가지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첫 번째는 근본적인 학습법, 두 번째는 실질적으로 시험을 잘 보는 법이다. 첫 번째 주제가 충분히 몸에 익혀져야 두 번째 주제를 습득할 수 있다. 하지만 첫 번째가 충분하다고 꼭 시험을 잘 치르는 것은 아니다. 지금부터 설명하는 두 가지를 독립적으로 이해하고 연계시켜 나갈 것을 추천한다.

1) 통합과학 근본적인 학습법

고등 과학에서 그냥 외우는 것은 단연코 하나도 없다. 교과서에서 다루는 모든 개념에는 원리가 있다. 학교 수업 혹은 인터넷 강의 상에서 그 원리와 이유를 논리적으로 가르치고 있다. 만약 논리적으로 충분히 이해가 되었다면 ‘암기’할 것을 추천한다. 시험장에서 24문항의 자료를 모두 논리적으로 해석하고자 한다면 한정된 시간 안에 주파하기 힘들 수 있다. 즉, 학습할 때는 충분히 이해하고 고사장에 갈 때는 암기할 것과 현장에서 분석해야 할 것을 명확히 구분해서 접근해야 고득점을 얻을 수 있다. 이것을 구분하는 요령과 능력에서 본인의 실질적인 내신등급이 나뉜다고 생각하면 된다. 교과서에 나오는 예시와 그림 등의 자료들은 시험 문제에 그대로 출제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평소 학습 시 눈에 익혀 두어야 한다. 또한, 많은 학생들이 “보기에서 옳은 것을 있는 대로 고르시오”라는 형태의 문제를 어려워하는데, 이러한 형태의 문항에 익숙해져야 한다. 특히 조금이라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틀리게 되므로 기본 개념을 확실히 학습해야 하고, 문제 풀이 후에는 채점에만 그치지 말고 모든 보기에 대한 정오 여부를 따져가며 공부하는 습관을 들이도록 노력해야 한다.

2) 실질적으로 시험을 잘 보는 법

지금부터 본 글에서 중요한 실질적인 이야기가 시작된다. 학생들은 고득점을 얻기 위해서 학업 외의 어느 부분을 확인하고 챙겨야 할까?



- ① 진학하게 된 학교에서 통합과학을 몇 분의 선생님이 나누어 가르치시는지 확인한다. 한 과학 선생님의 실질적인 주 전공은 한 과목이다. 만일 2명의 교사(화학 교사와 지구과학 교사)가 통합과학 수업을 진행한다면 고난도 문항은 어디서 등장하게 될까? 당연히 화학과 지구과학 파트 일 것이다. 그러면 그 파트에서는 화학, 지구과학 수준의 학습을 같이 겸비해야 고득점을 얻을 수 있다. 물론 고사 대비 기간 동안 주어진 시간은 모든 학생에게 동일하니 다른 두 과목은 상대적으로 적은 비중 학습 시간을 투자해야 가성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 ② 배우고 있는 교과서의 출판사를 확인하라. ‘도플러 효과’, ‘트랜지스터’ 등은 학습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실질적으로 일부 교과서에서는 다루지 않는다. 자신이 배우는 주 교과서를 먼저 충분히 탐구해보자. 만약 기존 인터넷 강의 등에서 어렵게 배웠지만, 교과서에서는 다루지 않는 내용이고 학교에서도 특별한 가르침이 없다면 비교적 적은 시간을 투자하는 것이 학습의 가성비를 높이는 방법이다. 참고로 EBS에서는 교과 출판사별로 차별화된 통합과학 인터넷 강의를 제공하고 있으니 본인 교과서에 맞는 인터넷 강의를 선별하여 수강하는 것을 추천한다.

3) 시간의 압박을 해결하는 법

통합과학을 처음 고사장장에서 겪어보면 중학 과학과 근본적으로 상황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된다. 바로 시간의 압박이 있기 때문이다. 4가지의 주제(물, 화, 생, 지) 25문항을 50분 남짓 시간으로 풀어내야 하는 상황이다. 거기에 서술형 문항도 해결해야 한다. 즉, 한 문항에 할당된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 시간을 투자해야 하는 문항과 빠른 속도로 지나가야 하는 문항에 대한 선구안 없이 모든 문항에 같은 시간을 투자하여 풀어나고자 하면 공부는 열심히 했으나 고사장장에서 손도 대지 못하는 허탈한 경험을 하게 된다. 시험 1주일 전에는 문제 풀이를 하면서 시간의 배분을 문항마다 다르게 하는 가상연습을 해보는 것이 중요하다. 일종의 약속을 하고 고사장에 들어간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중화 반응의 그래프 유형의 문항이 등장하면 일단 넘어가고 최후에 대입을 통해 비약해서 풀어나간다.’ ‘서술형 문항 중 쉬운 것을 먼저 풀어나간다’는 식의 약속을 말한다. 학교에서는 내신등급 변별을 위해 지필평가의 문항별 배점을 소수점 단위로 나눈다. 그러므로 시험 문제를 풀 때, 배점이 높은 문제를 틀리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도 필요하다.

다. 내신 외, 학생부와 수행평가 대비법

1) 풍부한 학생부 만드는 법

학생부를 풍부하게 채우기 위해서는 희망하는 진로와 해당 학기에 학습하는 내용을 연관 지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학습을 하면서 흥미와 관심이 생기는 분야를 찾았다면, 진로와 연관지어 활동하고 이러한 활동이 생활기록부 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기록되는 것이 중요함을 의미한다. 자신의 관심 분야와 관련된 과목의 수업 활동 및 수행평가에 적극적인 태도로 참여하여 구체적인 사례가 생활기록부 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기록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이를 과목별 독서 활동으로 확장하고, 자신의 진로와 관련된 (자율) 동아리 활동, 다양한 교내 활동 및 대회에 참여하여 자신의 활동을 누적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발전시켜 보고서를 제출하거나 발표하는 등 수행평가를 할 때 적극적인 태도로 훌륭한 결과물을 만들어야 한다. 이런 결과물은 과목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에 기록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가 될 수 있다.

2) 수행평가 대비법

수행평가는 학교마다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탐구 실험, 포트폴리오 작성, 프로젝트 진행, 발표 등 개별 혹은 조별로 과제가 부여되며 이들을 수행하는 과정 및 결과를 모두 평가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학기 초 안내해 주신 교수·학습 평가계획을 잘 숙지하고 평가 기준에 맞춰 수행평가를 진행하고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다. ‘COVID-19’로 축소 운영되었던 수행평가가 점점 증가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특히 ‘실험·탐구’에 중점을 두어 준비하는 것을 추천한다. 실험·탐구 수행평가가 진행되는 날은 미리 안내됨으로 수업 전 탐구 내용을 숙지하여 ‘실험을 통해 확인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어떤 결과값을 얻고자 하는가?’, ‘결과값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등의 내용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실험 탐구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이 사전에 공지되는 평가 기준을 잘 숙지하여 이에 맞추어 과정 및 결과물을 내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V

EBSi

콘텐츠 활용 안내

V. EBSi 콘텐츠 활용 안내

5.1 EBSi 소개

가. 국가대표 고교강의 사이트 EBSi



국가대표 고교강의 사이트, EBSi는 예비 고1부터 수험생을 대상으로 고품격 동영상 강의 및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온라인 학습 사이트이다. EBSi는 체계적인 강좌 및 교재 커리큘럼과 최고의 선생님들과 함께 수능과 내신 강의를 제공하고 있다. 스트리밍 및 다운로드 강좌 서비스, 수능/모평/학평 기출문제 등을 제공하는 풀서비스,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문제추천 '단추'와 문제검색 '푸리봇' 서비스,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한 발 빠른 입시정보, 입시전문위원들의 칼럼, 1:1 논술 첨삭 서비스 등 EBSi에서만 볼 수 있는 특화 서비스까지 최적화된 학습 시스템을 제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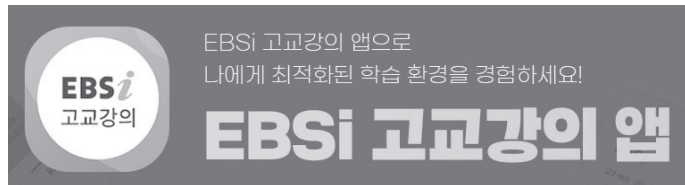
나. 사이트 이용



“선생님” 및 “모든강좌”는 학년별 선택에 따라 각 학년에 맞는 내용으로 서비스되며, “교재”, “모의고사”, “기출문제”, “입시정보”, “맞춤학습”은 공통 서비스로 학년 선택에 상관없이 통합 서비스로 운영되고 있다. 강좌 상세페이지에서는 강의 수강은 물론, 학습과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또한, 스트리밍 서비스를 통해 일반화질/고화질로 강의를 선택하여 동영상을 다운로드 받아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되고 있다.

다. 모바일 서비스 이용

EBSi의 다양한 서비스는 PC뿐 아니라 모바일 웹(m.ebsi.co.kr) 그리고 모바일 앱에서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EBSi는 온라인을 통해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학습 가능한



교육서비스와 수준별 교수를 통해 질 높은 강의 서비스를 제공하여 학습자 중심의 양방향 교육을 실현하고 수능 연계를 통해 평등 교육을 실천하고 있다. 모바일 서비스의 마이 메뉴에서도 내가 수강 중인 강의를 확인할 수 있고, 사이트에서의 나의 활동을 확인할 수 있다. 듣고 싶은 강좌 선택, 강의별 질문도 효율적으로 학습할 수 있으며 최신 입시 뉴스와 입시설명회 다시보기 등을 빠르게 확인할 수 있다.

5.2 예비 고1 대상 추천 강좌

가. 고등학교 HOT 데뷔를 위한 고1 성적 미리보기 <예비 고1, 내 등급은?>

- 특징 1. 전국 단위 수준 진단을 경험할 수 있는 강좌
- 특징 2. 반 배치고사를 준비할 수 있는 강좌
- 특징 3. 첫 학평, 3월 학력평가를 대비할 수 있는 강좌



<예비 고1, 내 등급은?>은 예비 고1을 대상으로 주요과목인 국어·영어·수학의 문제풀이를 통해, 고등학교 1학년의 성적을 미리 볼 수 있게 만든 강좌이다. 고등학교 첫 시험인 반 배치고사 연습을 위한 “고등학교 신입생 반 배치고사 문제”를 수록하여 고등학교 시험 유형의 감을 잡을 수 있게 도와준다. 또한, 3월 새 학기 첫 시험 전국연합학력평가 연습을 위해 전국연합학력평가 기출문제 최신 3개년 3회분을 제공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내 현재 위치를 확인할 수 있는 등급컷, 표준점수, 원점수를 제공하고 있다.

나. 예비 고1을 위한 고등학교 입문 강좌 <EBS 고등예비과정>



- 특징 1. 선배들이 믿고 선택한 입문 강좌
- 특징 2. 지문과 문제를 통한 개념 이해 강좌
- 특징 3. 핵심을 단기간에 정리할 수 있는 강좌



고등학생은 처음이라, 공부해야 할 과목은 많은데 무엇부터 해야할 지 모르겠다면? <EBS 고등예비과정>으로 시작하자. <EBS 고등예비과정>은 고1에게 가장 인기가 많은 강의로, 새 교과서의 핵심을 한 권에 수록하고 있다. 새 교과서의 개본 개념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해주고, EBS에서 엄선한 지문과 문제를 통해 학교시험 대비와 기초 개념을 탄탄하게 만들어 준다. 교과서의 핵심내용을 단기간에 정리하고 있어, 짧은 시간에 학습능력을 최대로 이끌어준다. 또한, 교재에 모르는 문제가 있으면 스마트폰으로 촬영을 해보자. 문제에 대한 해설강의로 바로 넘어가는 EBS 스마트 북 서비스가 연동되어 있다. 새로운 시작, <EBS 고등예비과정>으로 고등학교 학습에 자신감을 가져보자.

다. 예비 고1을 위한 특별한 주요과목 기본서! <올림포스>

- 특징 1. 교과서를 이해하기 쉽게 풀이한 강좌
- 특징 2. 주제별로 기본 내용이 정리된 강좌
- 특징 3. 기초부터 차근차근 배울 수 있는 강좌



국어, 수학, 영어 공부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방법을 잘 모르겠다면, 주요과목 기본 개념서 <올림포스>를 추천한다. 내신과 수능을 위한 기본 개념 정리부터 다양한 문제 유형 학습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기초를 잡고 싶다면 <올림포스>로 해결할 수 있다. 특히, 국어, 수학, 영어는 고등학교에서 모든 학생이 배우는 ‘공통과목’에도 들어 있고, 진로와 적성에 따라 다양하게 배우는 ‘선택과목’에도 포함되는 중요한 과목이므로 기초부터 제대로 시작할 필요가 있다. <올림포스>는 현재 기초, 기본, 발전 3단계로 내 수준에 맞춰 강의를 선택하며 들을 수 있으니, 기초부터 차근차근 따라가다 보면 고등학교 공부 준비가 든든해질 것이다.

라. 예비 고1을 위한 통합사회, 통합과학에 완벽하다! <개념완성>



- 특징 1. 탐구영역 내신+수능 감이 잡히는 강좌
- 특징 2. 한국사, 사회, 과학의 핵심 개념 강좌
- 특징 3. 주제별 주요 탐구자료를 볼 수 있는 강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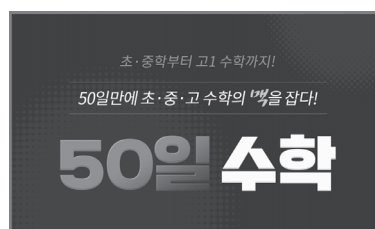
고등학교에 들어가면 ‘통합사회’, ‘통합과학’이라는 과목을 배우게 된다. 통합사회, 통합과학은 고1 필수 과목이다. 통합사회, 통합과학 그리고 한국사를 처음 접한다면 <개념완성>을 추천한다. 2015 개정교육과정 취지에 맞게 통합형 사고력 향상을 위한 문제 구성은 물론, 완벽한 개념 이해를 위한 자세한 설명, 풍부한 사례 제시, 그리고 학교 시험 문제 유형인 서술형, 수행평가를 대비할 수 있는 활동지와 시험 대비 모의고사까지 한 권에 다 들어있다. 내신 1등급 달성에 이보다 완벽할 수 없을 것이다. <개념완성>은 현재 기초, 기본, 발전 3단계로 내 수준에 맞춰 강의를 선택하며 들을 수 있으니, 기초부터 차근차근 따라가다 보면 고등학교 공부 준비가 든든해질 것이다.

마. 수학이 고민인 학생들을 위한 강의 <50일 수학>, <고1 수학 개념 끝장내기>, <수학의 답>

고등학교를 진학하기 전부터 수학을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많아지고, 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 중학생 때 어려워서 넘겼던 수학의 일부 단원이 또 나오고, 반복되면서 결국 고교까지 수학을 포기하게 되는 학생들이 많다. EBS에서는 수학을 어려워하는 친구들을 위하여 수학을 포기하지 않도록 다양한 수학 강의를 제공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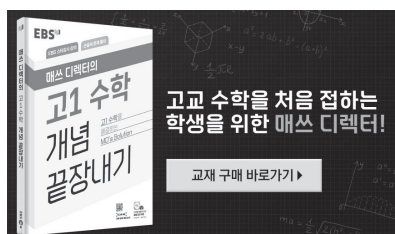
1) 초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수학을 어려웠던 친구를 위한 <50일 수학>

- 특징 1. 초등부터 고1까지의 개념으로 구성된 강좌
- 특징 2. 수학 기초가 부족한 학생을 위한 강좌
- 특징 3. 단기간에 정복 가능한 강좌



<50일 수학>은 고등학교 수학을 위해 초중학교 과정에서 알아야 할 수학 내용을 주제별로 구성하여 초등학교부터 고교까지의 학습을 정리할 수 있는 강의이다. 초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수학을 포기했던 학생이나, 특정 단원이 유독 풀리지 않는 학생들을 위해 수학 영역별로 초등부터 고1까지 연결되는 개념을 단계적으로 구성한 것이 특징이다. 고등수학을 위해 초등학교, 중학교 과정에서 알아야 할 수학 내용을 주제별로 구성해 놓아, 기초부터 탄탄한 개념 학습이 가능하다. 또한, 기초 개념 확인을 위한 낮은 수준의 문제들로 구성되어 있어 어려운 단원을 빠르게 파악하고 집중적으로 학습하는 데 도움이 된다.

2) 고교 수학이 처음이라면 매쓰 디렉터의 <고1 수학 개념 끝장내기>



- 특징 1. 탄탄한 기본기를 만드는 강좌
- 특징 2. 개념과 원리 이해 중심의 강좌
- 특징 3. 대표 예제를 통한 활용도 높은 TIP을 주는 강좌

<50일 수학>이 초등학교부터 고교를 영역별로 정리한 강좌였다면, <고1 수학 개념 끝장내기>는 고등학교 수학 과목에 대해서 친절하게 설명하고, 필요하다면 중학 개념도 함께 알려주는 고교 수학을 처음 배우는 친구들에게 최적화된 강좌이다. 자세한 핵심 개념과 용어 설명과 개념을 확인할 수 있는 문제들로, 학습한 내용을 점검할 수 있다. 각 단위 유형별 변형 문제와 내신 대비 문항으로 최종 점검도 가능하다. 열정형, 유머형, 스토리텔링형 정승제 선생님과 함께 한 번을 들어도 머릿속에 명확히 남는 강의로 고1 수학을 클리어 해보자.



3) 개념부터 원리 이해를 10분 만에 끝내는 <수학의 답>

- 특징 1. 짧지만 강렬한 10분 수학 강좌
- 특징 2. 개념과 원리를 완벽하게 학습할 수 있는 강좌
- 특징 3. 필요한 부분의 개념만 골라 듣는 강좌



<수학의 답>은 10분짜리 수학 개념 강의로, 고교 수학의 개념과 원리를 임팩트 있게, 완벽하게 학습시켜주는 강의이다. 단순 암기가 아닌 “왜?”를 기반으로 접근하는 수학 개념으로, 짚막하고 재미있게 들을 수 있는 게 가장 큰 장점이다. 수학을 좋아하지 않는 학생들도 흥미를 유발시켜 수학에 대한 관심을 가질 수 있게 도와주는 <수학의 답>은 주제별로 강의를 나뉘어 있어 필요한 부분의 개념들만 골라 들을 수 있다.

라. 내년에 무엇을 배울지 선행학습을 하고 싶다면 <개념 몰아보기>



- 특징 1. 2주 단기간에 개념을 몰아보는 강좌
- 특징 2. 미리 알아야 할 개념을 짚어주는 강좌
- 특징 3. 방대한 양을 핵심 압축 정리해주는 강좌

고등학교 국어, 수학, 영어에서는 무엇을 배우는지, 선행학습을 하고 싶은 학생들에게는 고1에 배우는 모든 개념을 담은 <개념 몰아보기>를 추천한다. 중학교 과정을 성실하게 수행하여 기본을 갖춘 예비 고1 학생이라면 단기간에 배우는 몰아보기를 통해 내신과 수능에 효과적인 적용 방법을 배울 수 있을 것이다. <개념 몰아보기>를 통해 배워온 기초 개념을 정리하고 방대한 양의 고등학교 필수 개념을 압축 정리해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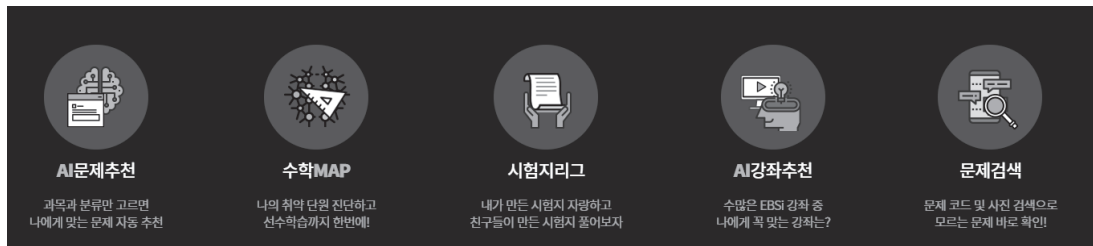
〈고1을 위한 연간 커리큘럼(2022년 ver)〉

학습 단계	고1 입문	기본개념	시험대비
활용 시기	겨울방학/여름방학/ 예습 및 복습	학기 중 내신/개념 학습	학교 내신 평가 준비 기간
필수	고등예비과정 (국,수,영,한,사,과)	올림포스 (국,수,영)	올림포스 전국연합평가 기출문제집 (국,수,영)
		개념완성 (한,사,과)	학교 시험 3주 완성 (수,영,한,사,과)
		교과서 진도 특강 (국,수,영,사,과)	교과서 시험직전 요약 (국,수,영,사,과)
기초	고1 예비, 내 등급은? (국,수,영)	초중고 연계 개념 (수,과)	수행평가 특강 (국,수,영,사,과)
		30일 수학 (수)	시험에 꼭 나오는 영어 (영)
		50일 수학 (수)	
		하이스쿨 특강 (한,사)	
		올림포스 닥터링 (수)	
기본	2주 집중관리 (국,수,영,한,사,과)	국공파 (국)	개념완성 문항편 (한,사,과)
	윤해정의 나비효과 (국)	어휘가 독해다 (국)	학교시험 서술형특강 (수,영)
	매쓰디렉터의 고1 수학 개념 끝장내기 (수)	국어 독해의 원리 (국)	
	수능 개념 잡는 대박구문 (영)	국어 문법의 원리 (국)	
		수학의 왕도 (수)	
		English Power (영)	
		한국사 종합 완성 (한)	
		다(多)담은 한국사 연표 (한)	
고급	수능 감(感)잡기 (국,수,영)	단기특강 (국,수,영)	고1 학력평가 해설 3/6/9/11월 (전 영역)
	뉴수능 스타트 (국,수,영)	올림포스 고난도 (수)	



5.3 EBSi 편리한 서비스

가. DANCHOO 맞춤학습



EBSi에서는 비효율적인 학습에 방법을 해결하기 위한 <인공지능 DANCHOO>를 서비스하고 있다. ‘단추’는 맞춤형 추천 문제 및 강자로 영역별 취약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AI문제추천”에서는 과목과 분류만 고르면 나에게 맞는 문제를 자동 추천해주는 서비스이다. “수학MAP”은 수학을 어려워하는 학생들을 위해 만들어진 서비스로, 나의 취약 단원을 확인하고 선수학습을 통해 학습의 완성도를 높여주는 서비스이다.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수학은 연결되어 있다. 수학MAP 서비스를 통해 부족한 부분을 확인하고 수학의 완성도를 높여보자. “시험지리그”는 내가 직접 문제들을 선별하여 시험지를 만들 수 있는 서비스이다. 내가 만든 시험지 자랑도 하고, 친구들이 만든 시험지를 풀어보며 내 실력도 점검해보자. “AI강좌추천”은 수많은 EBSi 강좌 중 나에게 맞는 강자를 추천해주는 서비스로, 학습 수준에 맞는 강자를 추천받을 수 있다. “문제검색”은 문제 코드 및 사진 검색을 통해 바로 문제 풀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로, 모르는 문제가 있다면 바로 검색해서 풀이 강의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나. 5분 개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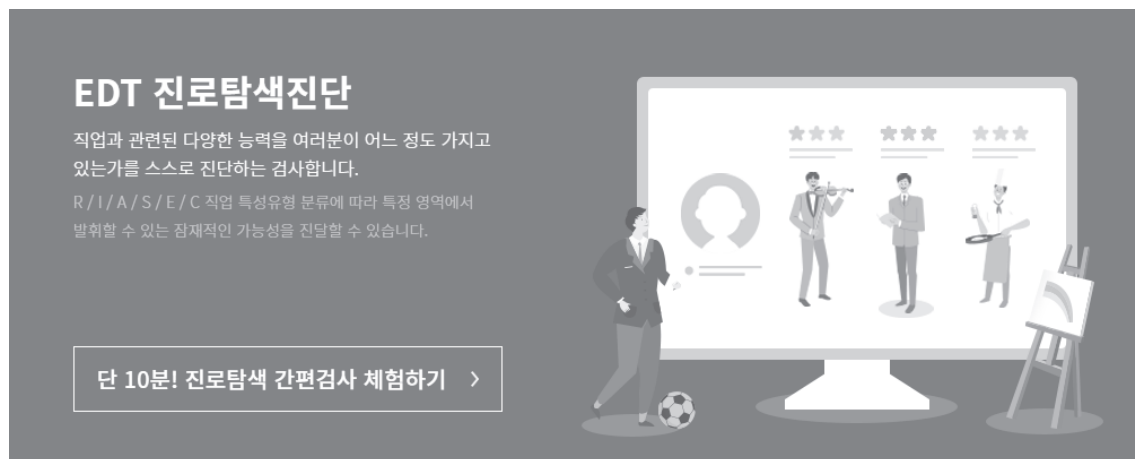
EBSi에서는 자투리 시간 및 수업에 바로 활용 가능한 <5분 개념> 클립 영상을 찾아볼 수 있다. 클립 영상이란 10분 내외로 짧게 구성된 고품질의 영상 콘텐츠로 과목별 주요 개념을 다루고 있다. 고전시가, 사자성어, 수학 공식, 킬러문항 풀이법, VOCA, GRAMMAR, 근현대사, 조선사, 세계사, 3D 지구과학, 과학 실험, 필독서 등 10분 내로 지식을 채울 수 있는 5,906개의 영상을 서비스하고 있다. <5분 개념> 영상 역시 다운로드하여 스마트폰에서 수강이 가능하니, 가지고 다니며 자투리 시간을 잘 활용해 보자.

다. 듀냐공감(<http://u.ebsi.co.kr>)



EBSi에는 선생님과 소통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 우리끼리 소통하는 공간도 마련되어 있다. <듀냐공감>에는 “커뮤니티”를 통해 각자의 의견과 고민을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어 다른 친구들의 생각도 엿볼 수 있다. 또한, “듀냐멘토링”을 통해 멘토들에게 공부법, 진로, 진학, 슬럼프 탈출방법, 면접 등 궁금했던 고민들을 마음껏 물어보는 공간도 있다. 멘토들에게 직접 질문을 하고 최신 정보로 궁금한 것들을 해결할 수 있다. “듀냐TV”에서는 인공지능 단추가 알려주는 모평, 학평에서의 많이 틀린 영역별 문제나 매일 5분씩 외우는 수능 영단어, 학습에 대한 궁금증 등을 자투리 시간을 활용해 볼 수 있는 클립 영상들이 있어, 시간을 알차게 활용하는데 도움을 준다. 마지막으로 <듀냐공감>의 “이벤트”에서는 매달 진행되는 이벤트들을 통해 EBSi로 공부하면서 선물도 받을 수 있다. 교재가 출시되거나 학평·모평이 다가올 때 재미있는 이벤트를 통해 좋은 선물을 제공하니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응모해보자.

라. 진로탐색검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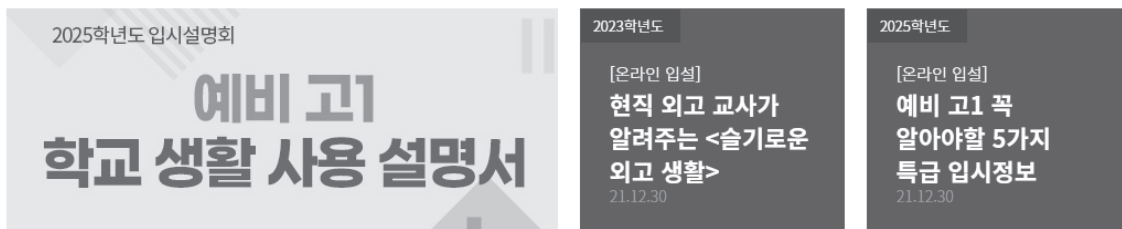
어떤 학과를 갈지, 어떤 사람이 될지 빨리 결정하는 것은 다양한 선택과목을 학습하는 데 있어 큰 도움이 된다. 원하는 학과마다 이수해야 하는 과목이 있으니, 첫 단추부터 잘 끼워두면 고등학교 3학년 막바지에 과목을 바꿔야 하는 수고를 덜 수 있다. 내가 어떤 성향인지 파악하기 위해 EBSi <진로탐색검사>에서는 10분 이내의 간단한 검사를 통해 진로 성향을 확인시켜 준다. <진로탐색검사>는 직업에 대한 흥미와 관심, 본인의 능력과 역량을 파악하여 적합한 직업 분야, 학문 분야를 추천해주는 진로 가이드 역할을 한다. 어떤 종류의 일이나 활동을 좋아하고 하고 싶은지, 또래 친구들과 비교하여 잘 할 수 있는 특성이



무엇인지, 어떤 종류의 활동을 잘 할 수 있을지, 평소 흥미나 매력을 느끼는 직업이 무엇인지 <진로탐색 검사>를 통해 알아보자.

5.4 입시정보 서비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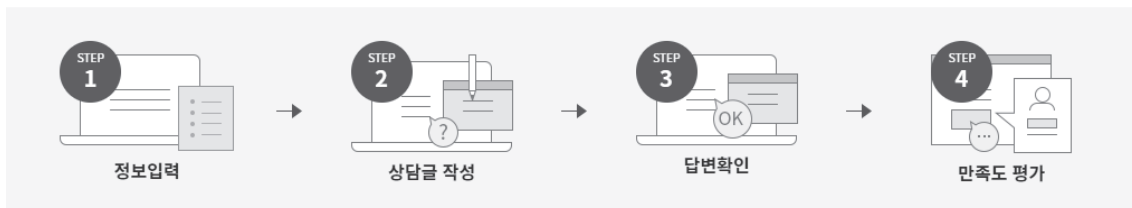
가. EBS 입시설명회



공부는 결국 진학과 연결된다. 자신이 흘린 땀과 노력을 제대로 평가받기 위해서는 대입전형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대입전형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EBS에서는 다양한 분석 정보 및 설명회 영상을 제공하고 있다. 2023학년도부터 2026년까지 예비 고1 대상, 고1~고3 대상까지 나에게 맞는 해당 학년도를 클릭해서 찾아볼 수 있다. 이곳에서 우리 지역에서 개최되는 예정된 입시설명회의 시간과 장소 등도 알아볼 수 있다. 또한, 직접 들었던 입시설명회는 행사 후 1주일 이내로 사이트에서 다시보기가 가능하므로 다녀온 뒤 다시 보고 싶은 부분을 다시 볼 수 있다.

나. EBS 대입상담실

강좌로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EBS 대입상담실 서비스를 이용해 보자. EBS 대입상담실에서는 수시, 정시, 입시, 진로, 학습법뿐만 아니라 예체능까지 대입에 관한 모든 궁금증에 대한 1:1 맞춤 상담이 가능하다. 입시정보로는 찾아보기 힘든 N수생, 특성화고 학생, 검정고시, 전문대 등에 대한 궁금증도 <EBS 대입상담실>에 남겨두면 현직 교사이자, 진로진학 상담위원 선생님들이 최신 버전의 입시정보로 궁금증 해결을 도와준다. 상담글을 작성하면 EBS 진로진학 전문가 선생님이 무료로 18시간 이내에 답변을 제공한다. 나의 개인정보는 공개되지 않으며, 나의 상담글도 비밀로 작성되어 답변 선생님만 볼 수 있도록 철저히 보호되어 상담받을 수 있다.



다. 입시 카드뉴스

입시가 궁금하지만 하나하나 검색하기는 쉽지 않은 일이다. 또한, 입시 용어가 무엇인지 생소한 학생들도 많을 것이다. 수시로 바뀌는 입시정보와 수많은 입시용어를 알기 쉽게 알려주기 위해 5장 이내의 짧고 굵게 정보를 알려주는 <입시 카드뉴스>가 있다. <입시 카드뉴스>는 PC는 물론 모바일기기에서 볼 수 있으며 간결하게 정리되어 있어 시간 부족에 시달리는 수험생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예비 고1 EBS 입시자료집

발행처 : EBS

발행일 : 2022.09.01.

기획

한국교육방송공사 학교교육본부 학습콘텐츠제작부

김윤희(EBS 학습콘텐츠제작부 부장)

김철홍(EBS 학습콘텐츠제작부 ECP)

김진화(EBS 학습콘텐츠제작부 입시)

집필

김성길(EBS 진로진학 대표강사)

명지희(EBS 국어영역 대표강사)

정유빈(EBS 수학영역 대표강사)

김보라(EBS 영어영역 대표강사)

김준우(EBS 사회탐구영역 대표강사)

김지선(EBS 사회탐구영역 대표강사)

김청해(EBS 과학탐구영역 대표강사)

신영철(EBS 과학탐구영역 대표강사)

※ www.ebsi.co.kr에서 PDF를 무료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 EBSi(www.ebsi.co.kr)의 모든 학습과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됩니다.



EBSi 사이트 (www.ebsi.co.kr)

EBSi(www.ebsi.co.kr)의 모든 학습과 서비스는 무료로 제공됩니다.